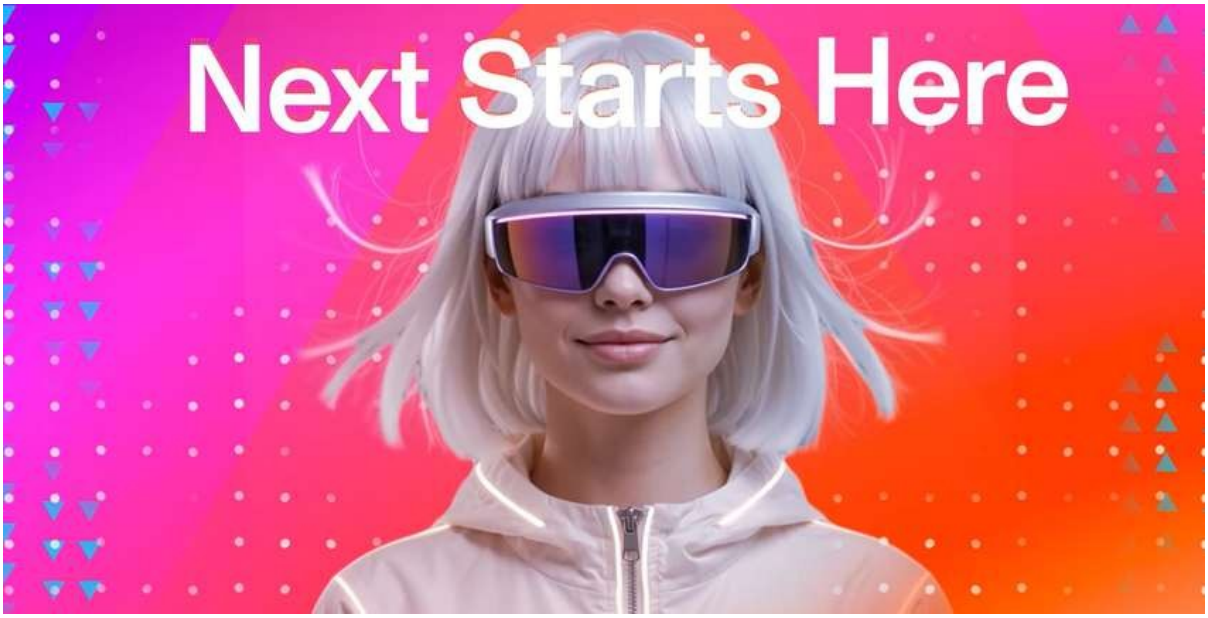
CES 2027

K 엔터테크허브 CES 2027 미리보기

CES 2027 전체 트렌드·관람 가이드 · AI · 엔터테인먼트 · 로보틱스 · 헬스 · 모빌리티



가이드 전체 트렌드, 분야별 관람 포인트, 기조연설, 등록·체크리스트

기사 1 AI 화두는 에이전틱 AI… CES 파운드리 사흘로 확대

기사 2 1 월 7 일 버라이어티 서밋, 할리우드 경영진의 의제는 광고와 팬덤

기사 3 로봇 화두는 ‘현장 배치’ … 산업용 로봇·제조 프로그램 확대

기사 4 헬스테크 화두는 ‘해석과 다음 행동’ … 애보트 헬스 허브 신설

기사 5 모빌리티 화두는 ‘소프트웨어 정의’ … 차량 기술 전시 역대 최대

한정훈 기자 · 2026 년 11 월 19 일

CES 2027 미리보기 가이드

[CES2027] 1 월 6 일 개막, AI 가 현장으로… 전체 트렌드와 분야별 관람 가이드

혁신상 출품 로보틱스·엔터프라이즈 74% 증가, 모빌리티 전시 역대 최대… 3 개 캠퍼스 12 개 장소, 표준 패스 11 월 30 일까지 149 달러

한정훈 기자 · 2026 년 11 월 19 일

한줄요약

CES 2027 이 앞세운 화두는 기기·공장·차량·병원 현장에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AI 다. 혁신상 출품은 로보틱스·엔터프라이즈 테크가 74%, AI 가 15% 늘었고, 모빌리티 전시는 역대 최대다. 1 월 6~9 일 라스베이거스 12 개 장소에서 열리며, 분야별 관람 장소·일정과 등록 방법을 정리했다.



CES 2025 LVCC 전시장. 사진=Jack145945(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CES 2027 이 전시장 전반에서 앞세운 화두는 기기와 서비스, 공장과 차량 안에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AI 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여는 CES 2027 은 2027 년 1 월 6 일(수)부터 9 일(토)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CTA 가 11 월 9 일 발표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 2027 출품은 로보틱스와 엔터프라이즈 테크 부문이 각각 74%, AI 부문이 15% 늘었다. CES 2026 감사에서도 로보틱스에 관심 있다고 답한 참가자가 26%, AI 관심 참가자가 22% 증가했다. 차량 기술 전시는 35 만 제곱피트(약 3 만 2500㎡)를 넘어 역대 최대이고, 베네치안에는 애보트가 후원하는 CES 헬스 허브가 새로 생긴다.

CES 2027 의 캠페인 문구는 ‘넥스트 스타츠 히어(Next Starts Here)’다. 다음 기술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뜻으로, CTA 는 등록 안내와 공식 홍보물에 이 문구를 앞세웠다.

CES 2027 한눈에

일정	2027 년 1 월 6 일(수)~9 일(토), 미디어데이 1 월 4~5 일
장소	라스베이거스 3 개 캠퍼스 12 곳 — LVCC, 베네치안, C 스페이스
참가 자격	18 세 이상 소비자 기술 업계 종사자(일반인 입장 불가)
등록비	표준 패스 149 달러(11 월 30 일까지), 12 월 1 일부터 349 달러
기조연설	5 건 — 레노버, 스텔란티스, 웨이모, WPP, 워너뮤직그룹
지난해 규모	CES 2026 참가자 14 만 8392 명, 전시 업체 4100 여 곳
올해 특징	60 회째 CES, 모빌리티 전시 역대 최대, CES 파운드리 사흘로 확대



CES 2027 캠페인 이미지. 자료=CTA

생성에서 실행으로… 다섯 분야를 잇는 흐름

AI 분야의 중심어는 에이전틱 AI 다. 질문에 답하던 AI 가 디지털·물리 환경에서 작업을 끝내는 단계로 옮겨가고, AI·양자 전용 프로그램 CES 파운드리는 1 월 6~8 일 퐁텐블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사흘로 늘어 열린다.

로봇은 시연 동작보다 현장 배치가 주제다. CES 2027 은 산업용 로봇·제조 프로그램을 늘렸다. 헬스는 건강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해석하고 다음 행동으로 잇는 기술로, 모빌리티는 차량·선박·항공기·대중교통을 하나로 묶는 소프트웨어 정의 모빌리티로 무게가 옮겨 갔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광고와 팬덤이 중심이다. 1 월 7 일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연사 36 명 가운데 13 명이 광고·마케팅 책임자이고, 로버트 킨클(Robert Kyncl) 워너뮤직그룹 최고경영자는 6 일 음악 산업 첫 CES 기조연설을 한다.

엔터테인먼트로 번지는 기술… 공연 로봇, 차량 화면, 자막 안경

다섯 분야 모두 엔터테인먼트와 닿는 지점이 있다. 올 상반기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60% 이상이 공연·연구용이었고, 로보택시 승객이 운전에서 손을 떼면 차량 화면은 영상·음악·게임과 광고를 소비하는 공간이 된다. 실시간 자막 안경은 공연·영화 관람의 접근성을 바꾸고, 레노버는 6 일 스피어(Sphere)의 몰입형 영상·음향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

60 회째 CES... CTA 가 묶은 세 갈래 '기반·전환·탐험'

CES 2027 은 60 회째 행사다. 킨지 파브리치오(Kinsey Fabrizio) CTA 최고경영자는 10 월 14 일 서울 코엑스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기술 흐름을 세 갈래로 묶었다. 반도체·데이터·에너지는 혁신의 '기반', 피지컬 AI·모빌리티·헬스케어는 산업의 '전환', 양자 기술·우주·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미래의 '탐험'이다. 멜리사 해리슨(Melissa Harrison) CTA 부사장은 스타트업 사비(Sabi)가 모자 모양 기기로 BCI 기술을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새로 오거나 돌아오는 기업도 있다. 우버(Uber)가 처음 부스를 내고, 포드(Ford)는 2020 년 이후 처음 돌아온다. AMD 는 LVCC 센트럴 플라자에 체험 공간을 열고, 일레븐랩스(ElevenLabs)는 노스홀로 자리를 옮긴다. 냅스터(Napster)·미디어텍(MediaTek)·스냅(Snap)·케이던스(Cadence)도 전시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SK 하이닉스·LG 전자·기아·현대모비스와 콜마코리아·마음 AI·모빌린트·비햅틱스·세라젬·위로보틱스가 참가하고, 제조 AX(M.AX) 얼라이언스는 LVCC 사우스홀에 휴머노이드 전시 구역을 꾸린다.

분야별 관람 가이드… 어디서, 언제 볼까

LVCC 는 홀마다 성격이 다르다. 웨스트홀은 모빌리티, 노스홀은 AI·에너지·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센트럴홀은 대형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체험, 사우스홀은 디자인·소싱과 액세서리 전시다. 베네치안 엑스포는 헬스·스마트홈과 스타트업관 유레카 파크, C 스페이스는 광고·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무대다.

분야	주요 장소	놓치지 말 일정
AI	LVCC 노스홀, 퐁텐블로(CES 파운드리)	1/5 11:00 PwC 물리적 AI(LVCC W232) 1/6 17:00 레노버(스피어) 1/6~8 CES 파운드리
엔터테인먼트	C 스페이스(아리아), LVCC 센트럴홀	1/5 디지털 할리우드(아리아) 1/6 14:00 워너뮤직 기조연설 1/7 버라이어티 서밋(아리아 조슈아 9·10)
로보틱스	LVCC 노스홀, 베네치안 엑스포	공식 투어 ‘넥스트 웨이브 오브 피지컬 AI’(LVCC·베네치안) 1/7 푸드 로봇 세션(베네치안 4 층)
헬스	베네치안 엑스포 CES 헬스 허브	1/7 11:45 애보트 세션 AARP 에이지테크 부스
모빌리티	LVCC 웨스트홀, 센트럴 플라자	1/5 18:30 웨이모 1/6 08:30 스텔란티스(부스 4518) 1/6~8 트랙별 콘퍼런스
스타트업·한국	베네치안 엑스포 유레카 파크·글로벌 파빌리온	통합한국관 1/8 투자 세션 ‘What Gets Funded in 2027?’(홀 G 스타트업 스테이지)

분야별 주요 장소와 일정(현지시간). 자료=CTA, 각 사, K 엔터테크허브 정리

스타트업과 한국 기업은 베네치안 엑스포의 유레카 파크와 글로벌 파빌리온에 있다. 8 일에는 홀 G 스타트업 스테이지에서 투자자들이 2027 년 투자 분야를 논하는 ‘What Gets Funded in 2027?’ 세션이 열린다.

처음이라면 공식 투어… 패스트트랙 LVCC·베네치안

CTA 와 공식 투어 파트너 스토리테크(StoryTech)는 전문가가 안내하는 쇼플로어 투어를 운영한다. CES 가 처음이거나 시간이 짧은 참가자에게는 ‘패스트트랙 LVCC’와 ‘패스트트랙 베네치안’을, AI·로봇·자동화에 관심 있는 참가자에게는 ‘넥스트 웨이브 오브 피지컬 AI’와 ‘오토노머스 월드(Autonomous World)’를 권한다.

투어는 약 1 시간 30 분이며 정원이 있어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일정 검색과 동선은 공식 ‘CES 앱’으로 짤 수 있다.

CES 2026 참가자 14 만 8392 명… 해외 5 만 5841 명, 141 개국

CTA 가 3 월 31 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CES 2026 참가자는 14 만 8392 명으로 전년보다 4% 늘었다. 해외 참가자는 141 개국·지역에서 온 5 만 5841 명으로 전체의 37.6%였다.

전시 업체는 4100 곳을 넘었고 전시 면적은 순면적 260 만 제곱피트(약 24 만㎡)였다. 스타트업관 유레카 파크(Eureka Park)에는 약 1200 개 스타트업이 섰다. 400 개 이상 세션에 1400 명 넘는 연사가 올랐고, 참가자의 52%가 고위 경영진이었다.

한국은 CES 2026 통합한국관에 역대 최대인 470 개사가 참가했고, 전체로는 1000 여 개 한국 기업이 부스를 차렸다. 코트라(KOTRA)는 2027 년 통합한국관을 베네치안 엑스포의 글로벌 파빌리온과 유레카 파크에 꾸린다.

CTA 는 10 월 13 일 한국전자전(KES)에서 ‘CES 아시아 언베일드 서울(CES Asia Unveiled Seoul)’을 열어 CES 2027 트렌드를 미리 소개했다.

올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파브리치오 최고경영자는 게임스비트(GamesBeat) 인터뷰에서 참가 등록과 전시 업체, 전시 면적, 후원사, 미디어 참여가 모두 지난해 이맘때보다 크게 앞서 있다고 말했다. CTA 는 11 월 2 일 모빌리티 전시가 35 만 제곱피트(약 3 만 2500㎡)를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CES 2026 에는 모빌리티 업계 참가자 1 만 5000 여 명이 왔고, 그중 60%가 고위 임원이었다.

3 개 캠퍼스 12 개 장소… LVCC 는 모빌리티, 베네치안은 헬스·스타트업, C 스페이스는 광고·엔터

CES 2027 전시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베네치안(Venetian), C 스페이스(C Space) 3 개 캠퍼스 12 개 공식 장소, 순면적 250 만 제곱피트 이상에서 열린다.

LVCC 웨스트홀은 차량 기술과 모빌리티, 노스홀은 AI·에너지·사물인터넷 전시가 중심이다. 베네치안 엑스포에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홈, 접근성 전시와 유레카 파크, 혁신상 쇼케이스가 모인다.

C 스페이스는 아리아(ARIA), 브다라(Vdara), 코스모폴리탄(The Cosmopolitan), 파크 MGM(Park MGM)에 걸쳐 광고·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이 회의와 상담을 한다.

캠퍼스 사이는 CES 무료 셔틀 ‘테크 익스프레스(Tech Express)’가 잇고, LVCC 홀 사이는 지하 터널 ‘베이거스 루프(Vegas Loop)’로 이동한다.



CES 2025 기간 베이거스 루프 LVCC 센트럴 정거장. 사진=Joseph Zadeh(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미디어데이 1 월 4~5 일, 전시장은 6 일 오전 10 시 개장… 토요일은 오후 4 시 폐장

1 월 4 일(월)과 5 일(화)은 맨덜레이 베이에서 미디어 전용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4 일 저녁 ‘CES 언베일드 라스베이거스’에서 주요 신제품과 스타트업이 먼저 공개된다. 일반 참가자는 5 일 콘퍼런스(오전 10 시~오후 5 시)부터 들을 수 있고, 전시장은 6 일 문을 연다.

날짜	주요 일정	전시장
1 월 4 일(월)	미디어데이 1·CES 언베일드(미디어 전용)	닫힘
1 월 5 일(화)	미디어데이 2, 콘퍼런스 10:00~17:00, 웨이모 기조연설 18:30	닫힘
1 월 6 일(수)	개막, 스텔란티스·WPP·워너뮤직·레노버 기조연설	10:00~18:00
1 월 7 일(목)	버라이어티 서밋(아리아), C 스페이스 9:00~18:00	9:00~18:00
1 월 8 일(금)	CES 파운드리 마지막 날	9:00~18:00
1 월 9 일(토)	C 스페이스·파운드리 닫힘	9:0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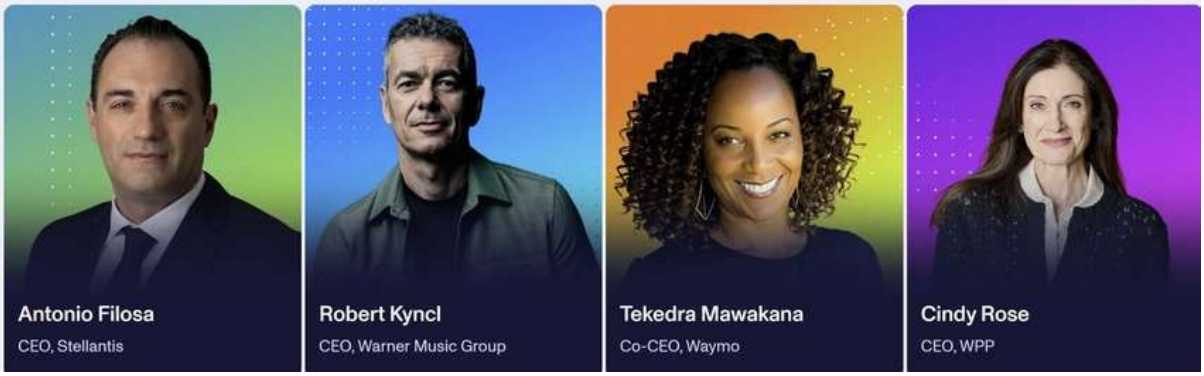
CES 2027 날짜별 운영 시간(현지시간). 자료=CTA

기조연설 5 건… 모빌리티 2 건, 광고·음악 2 건, AI 1 건

CTA 가 지금까지 발표한 CES 2027 기조연설은 다섯 건이다. 분야로 나누면 모빌리티(웨이모·스텔란티스), 광고·음악(WPP·워너뮤직), AI·디바이스(레노버)다. 개막 전날인 1 월 5 일 저녁 웨이모가 첫 무대를 열고, 6 일에는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 네 건이 이어진다.

일시(현지시간)	연사	분야·장소
1 월 5 일(화) 18:30	테케드라 마와카나 웨이모 공동 CEO	모빌리티 · 베네치안 팔라초 볼룸
1 월 6 일(수) 08:30	안토니오 필로사 스텔란티스 CEO	모빌리티 · 베네치안 팔라초 볼룸
1 월 6 일(수) 11:00	신디 로즈 WPP CEO	광고·마케팅 · 아리아 마리포사 볼룸(C 스페이스)
1 월 6 일(수) 14:00	로버트 킨클 워너뮤직그룹 CEO	음악 · 베네치안 팔라초 볼룸
1 월 6 일(수) 17:00	양위안칭 레노버 회장 겸 CEO	AI·디바이스 · 스피어

CES 2027 기조연설 일정. 자료=CTA



CES 2027 기조연설자. 왼쪽부터 안토니오 필로사(스텔란티스), 로버트 킨클(워너뮤직그룹), 테케드라 마와카나(웨이모), 신디 로즈(WPP). 자료=CTA

기조연설① 모빌리티… 웨이모 라스베이거스 운행, 스텔란티스 새 소프트웨어

테케드라 마와카나(Tekedra Mawakana) 웨이모(Waymo) 공동 최고경영자는 해외 확장과 차량 교체를 진행하면서 안전 기준을 어떻게 지키는지 설명한다.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주당 50 만 회 이상 운행한다.

라스베이거스는 웨이모의 15 번째 미국 시장으로, 9 월 14 일 대기자 명단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유료 운행을 시작했다. 출시 당시 운행 구역에는 스트립과 얼리전트 스타디움이 들어갔다. 차량은 지리 계열 지커(Zeekr) 플랫폼으로 만든 6 세대 로보택시 '오하이(Ojai)'를 쓴다.



웨이모 재규어 I-페이스 자율주행차. 사진=9yz(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안토니오 필로사(Antonio Filosa) 스텔란티스(Stellantis) 최고경영자는 개막일 CTA 산업 현황 발표 직후 무대에 선다.

14 개 브랜드의 차량·소프트웨어·디지털 생태계 전략을 소개하고, 새 차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시연과 함께 공개한다. 스텔란티스는 5 월 600 억 유로(약 700 억 달러, 약 94 조 5000 억원) 규모 5 개년 계획 'FaSTLAne 2030'을 내놓고 지프·램·푸조·피아트 4 개 브랜드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 컴퓨팅 'STLA 브레인', 통합 운영체계 'STLA 스마트콕핏', 자율주행 'STLA 오토드라이브'는 모두 2027 년 나온다. 퀄컴·엔비디아·웨이브·미스트랄 AI 등과 손잡았다.

기조연설② 광고·음악… WPP 는 '신뢰', 워너뮤직은 '창작 수익'

신디 로즈(Cindy Rose) WPP 최고경영자는 C 스페이스 키노트에서 AI 시대의 데이터 독립과 신뢰를 다룬다. 브랜드가 사람뿐 아니라 추천을 고르는 알고리즘에게서도 선택받아야 하는 만큼 신뢰와 투명성, 개방형 표준이 필수 조건이 됐다는 내용이다. 로즈는 "신뢰는 상업적 운영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WPP 는 2 월 전략 '엘리베이트 28(Elevate28)'을 내놓고 지주회사 구조를 버리고 크리에이티브·프로덕션·미디어·엔터프라이즈 4 개 사업부를 에이전틱 마케팅 플랫폼 'WPP 오픈(WPP Open)' 위에 묶기로 했다. 2028 년까지 연 5 억 파운드(약 6 억 7700 만 달러, 약 9100 억원)를 절감해 성장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

같은 발표에서 WPP 의 영업이익은 71% 줄었다. 6 월 칸 라이언즈에서는 다섯 가지 신뢰 원칙을 발표했다. WPP 미디어는 생성 AI 검색 광고가 2030 년 1000 억 달러(약 135 조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킨클(Robert Kyncl)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 최고경영자는 음악 산업 경영자로는 처음 CES 공식 기조연설을 하며, 창작과 상호작용으로 넘어가는 음악의 다음 장을 이야기한다.

CTA 는 11 월 18 일 이 일정을 발표하며 워너뮤직이 자체 기술과 플랫폼 제휴로 아티스트·작곡가를 보호하고 팬이 음악과 새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AI 제품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2026 년 워너뮤직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0'에 올렸다. 킨클은 유튜브 최고사업책임자로 유튜브 프리미엄·뮤직·TV 를, 그 전에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전환을 이끌었다.

워너뮤직은 수노·스태빌리티 AI·KLAY·유디오와 AI 음악 라이선스를 맺었고, 킨클은 이 계약이 2027 회계연도부터 구독 스트리밍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은 CES.tech 와 X·페이스북·유튜브·링크드인으로 생중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K 엔터테크허브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기조연설③ AI·디바이스… 레노버, 2 년 연속 스피어

양위안칭(Yang Yuanqing) 레노버(Lenovo)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6 일 오후 5 시 스피어에서 '테크 월드 @ CES'를 연다. 하이브리드 AI 를 주제로 스피어의 몰입형 영상·음향을 쓰고, 레노버 AI 생태계 스타트업이 스피어 아트리움에 전시한다.

킨지 파브리치오(Kinsey Fabrizio) CTA 최고경영자는 기술과 음악이 만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노버는 CES 2026 같은 무대에서 PC·스마트폰·웨어러블을 넘나드는 개인 AI 에이전트 '키라(Qira)'를 공개했다. 당시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리사 수(Lisa Su) AMD 최고경영자가 함께 올랐다. CES 2027 은 파브리치오가 CTA 최고경영자로 처음 치르는 CES 다.



레노버 기조연설이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사진=Shelby L. Bell(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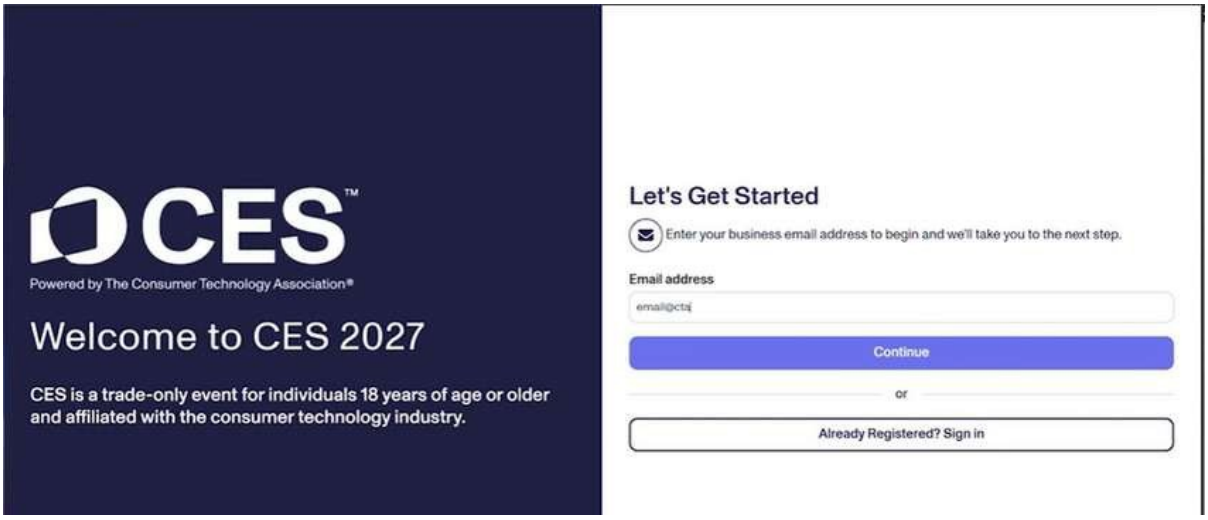
등록 방법… 업무용 이메일로 계정 만들고 명함·회사 웹사이트로 자격 증빙

CES 는 18 세 이상 소비자 기술 업계 종사자만 참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 행사로, 일반인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 업계 참가자는 명함과 회사 웹사이트로, 미디어는 최근 보도 실적으로 자격을 증빙한다. CTA 가 공개한 등록 안내 영상과 등록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절차를 정리했다.

단계	할 일
1. 시작	CES.tech 에서 등록(Register)을 누르고 업무용 이메일 입력
2. 계정 만들기	이름·회사·직함·비밀번호(12 자 이상, 이름 포함 불가) 입력 이 계정으로 CES 앱도 로그인
3. 참가 유형	참관(I'm attending)·취재(I'm covering)·출품사 직원(exhibiting company) 중 선택
4. 패스 선택	표준 패스 149 달러(11 월 30 일까지, 12 월 1 일부터 349 달러) 또는 프리미엄 패스 1450 달러 할인 코드 입력란 있음
5. 인적 사항	직함·회사·주소·국가·휴대전화(국가번호 포함), 배지용 사진 제출 장애 지원은 12 월 16 일까지 요청
6. 자격 심사	바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증빙이 부족하면 추가 자료 제출 때까지 보류

CES 2027 등록 절차. 자료=CTA 등록 안내 영상, K 엔터테크허브 정리

표준 패스는 전시장과 기조연설, 그레이트 마인즈·리서치 서밋 세션, 일부 콘퍼런스 세션을 포함한다. 프리미엄 패스는 여기에 모든 콘퍼런스 세션과 트랙, 파트너 프로그램을 더한다. 등록 때 낸 사진은 얼굴 인식으로 비교해 한 사람이 배지를 여러 장 받는 중복 등록을 막는 데 쓰인다.



CES 2027 등록 첫 화면. 업무용 이메일로 시작한다. 자료=CTA

심사가 늦어지지 않으려면 스팸함까지 포함해 ‘CES Registration’이 보내는 메일을 확인하고, 이 주소를 안전한 발신자 목록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등록 상태 확인, 추가 증빙 업로드, 영수증 확인은 등록할 때 쓴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CES 계정에 다시 로그인해서 한다. 승인 뒤에는 배지 정보와 여행 정보, CES 공지가 메일로 온다.



참가 유형 선택 화면. 참관·취재·출품사 직원 가운데 고른다. 자료=CTA

CTA 가 지정한 공식 등록 대행사는 마리츠(Maritz) 한 곳뿐이어서, 다른 업체가 보내는 등록 권유는 주의해야 한다.

등록에는 생년월일과 개인별 이메일이 필요하고, 배지는 1 인 1 장이다. 배지를 받을 때는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여권)을 보여줘야 하며, 다른 사람 배지를 대신 받거나 단체로 받을 수 없다. 전시장 수령 창구는 붐비므로 공항이나 지정 호텔에서 미리 받는 편이 낫다. LVCC 수령 창구는 1 월 2 일(토)부터 문을 연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모든 가방을 검사한다. 가방은 가로·세로·폭 30×43×15cm(12×17×6 인치) 이하 2 개까지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바퀴 달린 가방은 들일 수 없다. LVCC 와 베네치안 엑스포에 가방 보관소가 있다.

참가 전 체크리스트… 시차·날씨·전원·이동

항목	내용
입국	한국 국적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필요
시차	라스베이거스(태평양 표준시)는 한국보다 17 시간 늦음 개막 1 월 6 일 오전 10 시는 한국 7 일 오전 3 시
날씨	1 월 낮 최고 14°C 안팎, 아침·밤 0~4°C 실내외 온도 차가 커 겉옷 필요
전원	미국 120V, A·B 형 플러그 변환 어댑터 지참
배지	공항·지정 호텔에서 미리 수령, 여권 필수 대리·단체 수령 불가
가방	30×43×15cm 이하 2 개까지, 바퀴 달린 가방 불가 LVCC·베네치안에 보관소
이동	캠퍼스 사이 무료 셔틀 테크 익스프레스, LVCC 홀 사이 베이거스 루프
앱	공식 CES 앱으로 세션 검색·일정·지도 확인

CES 2027 참가 전 확인 사항. 자료=CTA, K 엔터테크허브 정리

1 월 7 일 동선… 오후 버라이어티 세션 듣고 저녁 5 시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으로

1 월 7 일 라스베이거스의 엔터테인먼트 일정은 아리아와 LVCC 에 몰린다.

버라이어티 서밋이 열리는 아리아 조슈아 9·10 홀 옆 조슈아 8 홀에서는 오후 1 시부터 CES 게이밍 트랙이, LVCC 웨스트홀 W218 에서는 홈 엔터테인먼트·스트리밍 트랙이 열린다.

오전에는 LVCC 센트럴홀 크리에이터 스페이스에서 ‘크리에이터 애드테크와 AI’ 세션이 이어진다.

시간	프로그램	장소
9:15–4:45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아리아 조슈아 9·10
9:30	K 엔터테크허브 투어 2 일차 — LVCC 전시장	LVCC
11:00	개막, 스텔란티스·WPP·워너뮤직·레노버 기조연설	LVCC 센트럴홀
1:00–4:40	CES 게이밍 트랙 홈 엔터테인먼트·스트리밍 트랙	아리아 조슈아 8 · LVCC W218
1:30	투어 — C 스페이스, 오후 버라이어티 세션(팬덤·AI·CMO)	아리아
5:00–7:00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 — 한국 기업 10 곳 피칭·K 컬처 존·네트워킹	라스베이거스(장소 추후 공지)

1 월 7 일(목) 엔터테인먼트 일정(미 태평양 시간). 자료=CES·버라이어티·K 엔터테크허브

K 엔터테크허브의 1 월 7 일 투어는 LVCC 전시장(9 시 30 분)과 크리에이터 스페이스(11 시)를 거쳐 오후 1 시 30 분 C 스페이스(아리아)로 옮긴다.

CES 배지를 가진 참가자는 이 시간대에 버라이어티 서밋 오후 세션인 팬덤(2:45), AI 도입(3:25), CMO 라운드테이블(4:05)을 듣고 저녁 서밋으로 이동할 수 있다. 투어 동선과 방문지는 CES 2027 투어 일정 기사에 정리돼 있다.

같은 날 저녁 5 시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 한국 엔터테크 기업 10 곳 피칭



CES 2027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 · 1 월 7 일 라스베이거스

버라이어티 서밋이 끝난 뒤 같은 날 오후 5 시부터 7 시까지 K 엔터테크허브(K-EnterTech Hub)와 smartcms 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Waving Entertainment Tech Summit)을 연다.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한다. 핵심 주제는 '비즈니스 모델 변화, 스케일에서 희소성으로'다.

AI 시대 할리우드, 숏폼·버티컬·몰입형으로 바뀌는 콘텐츠 포맷, CES 2027 엔터테크 트렌드 발표에 이어 한국 엔터테크·AI 기업 10 곳이 피칭하고, 뷰티·푸드·관광 등 K 컬처 기업 소개와 네트워킹이 이어진다.

어도비(Adobe)·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엔비디아(NVIDIA)와 할리우드 스튜디오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관람은 사전 등록 후 무료다.

K 엔터테크허브 CES 2027 프로그램… 보고서부터 서밋 피칭·풀서비스까지 7 단계

K 엔터테크허브와 smartcms 가 운영하는 CES 2027 엔터테크 프로그램은 엔터테크·미디어·콘텐츠·AI 기업을 위한 7 단계 상품으로 짜였다.

① CES 현장 보고서(50 만원)는 개막 한 달 전 사전 보고서와 폐막 1 주 뒤 사후 보고서, 단체 줌 브리핑을 제공한다.

② 엔터테크 콘텐츠 투어(조기 신청가 210 만원, 1 사 2 인, 정원 40 명)는 1 월 5 일 디지털 할리우드·AREA15·스피어와 1 월 7 일 LVCC·C 스페이스·서밋을 엔터테크 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돈다.

가장 많이 권하는 상품은 ④ 서밋 피칭·비즈매칭(조기 신청가 390 만원, 1 사 2 인)이다.

1 월 7 일 서밋에서 10 분 메인 피칭을 하고, 관심을 보인 국내외 VC·AC 와 후속 투자 미팅, 네바다 주정부 경제개발청(GOED)·필름 네바다·UNLV 등 현지 기관 네트워킹으로 이어진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K 엔터테크허브 기사 1 건도 포함된다.

서밋 현장 전시 테이블이 필요하면 ⑤ 엔터테크 서밋 전시(650 만원), 항공·숙박·식사·LA 연계까지 맡기려면 ⑥ 참가 풀패키지(1350 만원, 1 인)를 고를 수 있다. 미국 언론 배포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글로벌 홍보 패키지도 따로 있다.

모든 상품에는 smartcms 웨이빙 나이트 무료 참가, K 엔터테크허브 유료 회원 1 년, 2027 트렌드 보고서 『발견의 경제』 가 함께 제공된다. 조기 신청가는 12 월 15 일까지이며 가격은 부가세 별도다.

문의는 smartcms 남현정 대표(emilia@smartcms.co.kr)가 받는다.

‘넥스트 스타츠 히어’에서 ‘넥스트 한류 히어’로…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과 인사이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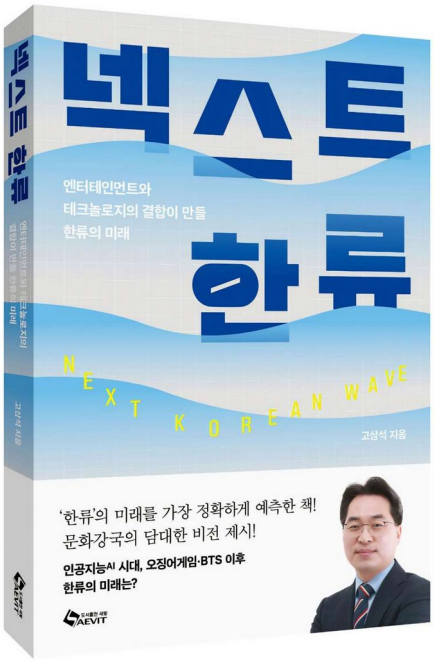
K 엔터테크허브는 CES 2027 의 ‘넥스트 스타츠 히어’를 한류에 옮겨, 1 월 5 일부터 10 일까지 라스베이거스와 LA 에서 ‘넥스트 한류 인사이트 프로그램 2027 — 엔터테크와 만나는 넥스트 한류’를 연다. CES 2027 현장과 동국대학교 LA 캠퍼스(DULA)를 한 과정으로 묶은 5 박 6 일 전문가 과정이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이 참가 안내와 모집을, 한류융합학술원(Dongguk University Hallyu Convergence Academy)이 전문가 특강과 라운드테이블, 결과 리포트를 맡아 협력한다. 자문은 『넥스트 한류』 저자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인 고삼석(Ko Sam-seok) 동국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고 교수가 2025 년 6 월 펴낸 『넥스트 한류 —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만들 한류의 미래』는 동남아시아·미국·중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30 년 한류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다.

반한 정서와 콘텐츠 피로,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 의존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책 2 부는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의 결합, 곧 엔터테크를 K 콘텐츠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다음 한류는 콘텐츠 수출을 넘어 세계 관객·창작자와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과 문화 파트너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의 특강과 라운드테이블은 이 책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삼석 『넥스트 한류』(2025). 자료=K 엔터테크허브

참가자는 1 월 5~7 일 라스베이거스에서 AREA15 견학, CES 투어 2 회, 고삼석 교수 특강 '넥스트 한류 — 엔터테크·컬처테크와 한류의 공진화', 필름네바다·클라크카운티가 참여하는 네바다 정책 미팅,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 스피어 공연을 소화한다. 8 일 LA 로 옮겨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한류 비즈니스 모델 기업, 코리아타운을 찾고, 9 일 DULA 에서 학술원 특강과 넥스트 한류 라운드테이블, LA 한류 네트워킹·VC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대상은 K 콘텐츠·K 팝·K 컬처·엔터테크 기업 대표와 임원, 투자자, 한류 연구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28 명 안팎이다. 참가비는 1 인 1200 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항공·숙박·자료집·네트워킹이 포함된다.

전망… 일반 소비자 기기보다 산업·서비스 현장의 AI

혁신상 출품에서 엔터프라이즈 테크가 로보틱스와 같은 74% 늘었고, 모빌리티 전시는 역대 최대 면적을 확보했다. 기조연설 세 건도 자율주행·차량·하이브리드 AI 가 주제다. CES 2027 전시장에서는 소비자 가전 신제품보다 공장·차량·병원·공연장에서 AI 가 일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게는 C 스페이스와 버라이어티 서밋이 열리는 1 월 7 일이 동선의 중심이다. 이 문서의 다섯 기사는 AI·엔터테인먼트·로보틱스·헬스·모빌리티 분야별로 CTA 발표와 참가 기업, 한국 기업의 수상 내역을 정리했다.

환율은 1 달러=1350 원 기준. 미터법 환산은 K 엔터테크허브 계산.

참고 자료

· CES, Registration Information
· CES, Dates and Hours
· CES, Safety and Security (bags, badges)
· CES 2027 Badge Pickup Locations (PDF)
· CES, Conference Program & Passes
· CTA, CES Innovation Awards 2027 Honorees (Nov. 9, 2026)
· CTA, Waymo Co-CEO to Keynote at CES 2027 (Sept. 21, 2026)
· CTA, Stellantis Keynote at CES 2027 (Sept. 8, 2026)
· CTA, Lenovo Keynote at Sphere (Oct. 7, 2026)
· TWICE, CES 2026 Draws Nearly 150,000 Attendees
· audioXpress, CES 2027 Returns January 6-9 (Oct. 8, 2026)
· Vegas Means Business, CES in Las Vegas
· 데일리안, CES 통합한국관 470 개사
· 뉴시스, CES 아시아 언베일드 서울 (2026-08-20)
· TV Tech, CES Honors LG OLED TVs
· 충남테크노파크, CES 2027 충남관 모집 공고(통합한국관 위치)
· CES, Show Floor Tours
· CES, Show Floor Tours (tour options)
· CES 2027 Schedule, Jan. 7
· CES 2027 Schedule, Jan. 8
· CES, Keynotes
· K-EnterTech Hub, Next Hallyu Insight Program 2027
· PR Newswire, WPP CEO Cindy Rose C Space Keynote
· Axios, Warner Music CEO on creation-based revenue (Sept. 9, 2026)
· K-EnterTech Hub, New Book "Next Korean Wave" (2025)
· CES, Registration Information (attendee guide)
· FOX5, Waymo launches robotaxi service in Las Vegas (Sept. 14, 2026)
· Yahoo Finance, Stellantis FaSTLAne 2030
· Constellation Research, Stellantis AI strategy
· Marketing Dive, WPP Elevate28
· City A.M., WPP results
· AdNews, WPP five trust principles

· Music Business Worldwide, WMG AI licensing
· Business Wire, Lenovo Tech World @ CES 2026
· Counterpoint, Lenovo Qira at CES 2026
· 아시아경제, CES at 60 Evolves into an Architect of Future Industries (2026-10-15)
· GamesBeat, CES 2027 preview: Kinsey Fabrizio interview
· CTA, Largest Mobility Footprint Ever at CES 2027 (2026-11-02)

CES 2027 테크 트렌드

[CES2027] AI 화두는 에이전틱 AI… CES 파운드리 1월 6일 개막, 사흘로 확대

CTA 공식 트렌드 영상 '일을 끝내는 AI·보이지 않는 AI' 제시… AMD·지멘스·제브라·일레븐랩스 전시, 워너뮤직 기조연설·버라이어티 AI 세션까지

한정훈 기자 · 2026년 11월 19일

한줄요약

CES 2027 이 AI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에이전틱 AI 다. 질문에 답하던 AI 가 디지털·물리 환경에서 직접 작업을 끝내는 단계로 옮겨 간다. AI·양자 전용 프로그램 CES 파운드리는 1월 6~8일 퐁텐블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사흘로 늘어 열린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일레븐랩스 음성 AI, 워너뮤직 기조연설, 버라이어티 서밋 AI 세션이 이어진다.



썸네일. 사진=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CES 2027 이 AI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18일 CES 공식 유튜브 채널에 1분 19초 길이의 ‘CES 테크 트렌드: AI(CES Tech Trends: AI)’ 영상을 올렸다.

CES 2027 공동 진행자인 테크 크리에이터 저스틴(Justine)과 브라이언 통(Brian Tong)이 나와 AI 가 질문에 답하는 단계를 넘어 사람이 일을 끝내도록 돕는 단계로 옮겨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CTA 는 에이전틱 AI 를 지능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작업을 완료하며 디지털과 물리 환경을 오가며 작동하는 기술로 설명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 AI(generative AI) 다음 단계라는 설명이다. 물리적 AI(physical AI)는 소비자 제품, 스마트홈, 모빌리티, 로보틱스 네 영역으로 퍼질 것으로 봤다.

CTA 가 함께 내건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층(invisible layer)'이다. AI 가 따로 쓰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쓰는 도구·기기·시스템·서비스 안에 들어가 작동하고, 이렇게 내장된 지능이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진행자들은 이 흐름이 CES 전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객 관심도 AI 쪽으로 움직였다. CTA 가 외부 감사를 거쳐 낸 CES 2026 집계에서 참가자는 14 만 8392 명이었고, AI 에 관심을 보인 참가자는 22%, 로보틱스 관심 참가자는 26% 늘었다고 오디오익스프레스(audioXpress)가 10 월 8 일 전했다.



CES 공식 영상 'CES 테크 트렌드: AI'. 자료=CES

CES 파운드리 1 월 6~8 일 퐁텐블로… 이틀에서 사흘로

CTA 는 AI 의 영향과 방향을 이해하는 일이 CES 파운드리(CES Foundry)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CES 파운드리는 CTA 가 2026 년 처음 연 AI·양자 전용 프로그램이다.

첫해에는 1 월 7~8 일 이틀 동안 퐁텐블로 라스베이거스(Fontainebleau Las Vegas)에서 열렸고, 2027 년에는 1 월 6~8 일 사흘로 늘어난다. 무대 대담과 시연, 네트워킹으로 기업용 AI, 보안·개인정보, 양자 응용을 다루며, 오디오익스프레스는 CTA 가 올해 프로그램을 에이전틱 AI 제품·플랫폼·전략 중심으로 짰다고 전했다.

CTA 는 전시장에서 AI 혁신을 볼 수 있는 부스로 AMD, 지멘스(Siemens), 제브라(Zebra), 일레븐랩스(ElevenLabs)를 꼽았다. 지멘스는 '현실에서 확장되는 산업 AI'를 내걸고 LVCC 노스홀 11512·11914 번 부스를 차리며, 개막 전날인 1 월 5 일 오전 11 시(현지시간) 미디어 데이 발표를 연다.



CES 2025 에 전시된 샤오펑 에어로 HT 의 모듈형 플라잉카. 사진=Xuthoria(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개막 전날 PwC '물리적 AI' 세션… 6 일 스피어서 레노버 하이브리드 AI

AI 세션은 개막 전날부터 이어진다.

1 월 5 일 오전 11 시 LVCC 웨스트홀 W232 에서는 PwC 가 '물리적 AI: 경영진의 말과 실제 예산' 세션을 연다. 같은 날 오후 2 시에는 '에이전틱 전환: 일을 바꾸는 AI 도구' 세션이 이어진다. 개막일인 6 일 오후 5 시에는 양위안칭(楊元慶, Yuanqing Yang) 레노버(Lenovo) 회장이 스피어(Sphere)에서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주제로 테크 월드 기조연설을 한다.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AI… 일레븐랩스 음성·워너뮤직 기조연설

전시 부스로 이름이 오른 일레븐랩스는 음성 생성·더빙·음성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다. 지난 4 월 NAB 쇼에서는 70 개 이상 언어를 지원하는 더빙 도구와 사람의 검수를 결합한 제작 서비스를 선보였다. K 엔터테크허브도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기사 요약 오디오에 일레븐랩스 음성을 쓰고 있다.

음악 업계 첫 CES 기조연설도 AI 를 다룬다. 로버트 킨클(Robert Kyncl)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 최고경영자는 1 월 6 일 오후 2 시 베네치안 팔라초 볼룸에서 음악 창작과 상호작용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CTA 는 음반사 경영자가 CES 공식 기조연설을 맡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할리우드 쪽 AI 논의는 1 월 5 일과 7 일에 몰린다. 디지털 할리우드(Digital Hollywood)는 5 일 아리아에서 '시네마틱 AI: 새로운 완성도 기준', 'AI 슬롭 시대, 품질이 새 화폐' 세션을 연다.

7 일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오후 3 시 25 분 AI 세션에는 멜로디 힐데브란트(Melody Hildebrandt) 폭스 코퍼레이션 최고기술책임자, 해즈브로(Hasbro) 식스월, 세일즈포스(Salesforce) 경영진이 나와 사람의 창의성을 지키면서 AI 를 사업에 들이는 방법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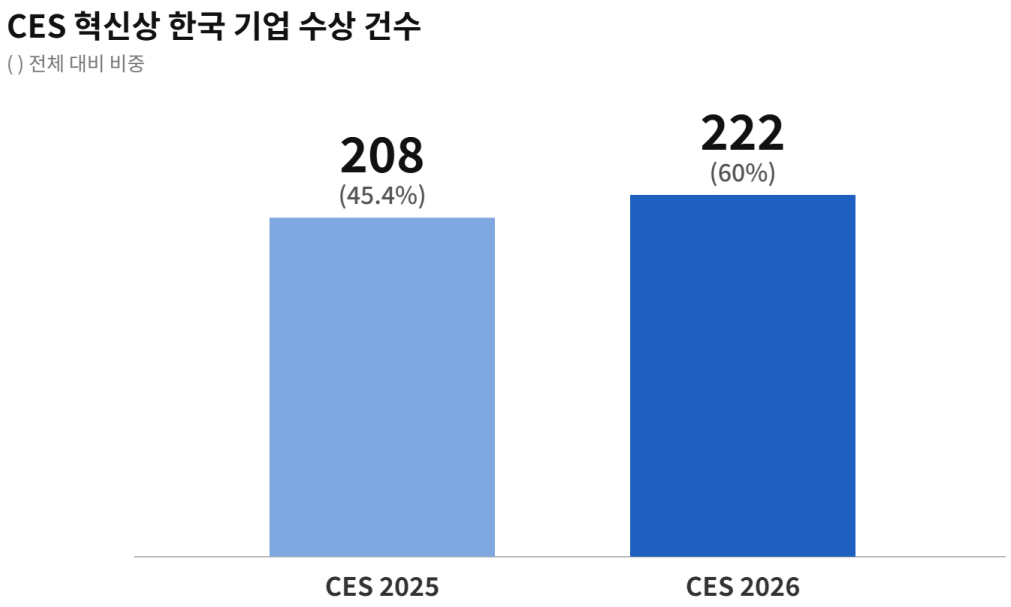
후반 제작 AI 는 지난 3 일 ICNX 2026 에서도 다뤄졌다.

1 월 5 일 디지털 할리우드 연사로 확정된 대런 프랭클(Darren Frankel) 어도비(Adobe) 영화·TV 부문 총괄은 ICNX 기조연설에서 후반 제작의 AI 도입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학습 자산을 소유하거나 라이선스한 AI 와 받아쓰기·장면 검출 같은 보조 AI 를 구분했고, 한국 콘텐츠에는 현지화 AI 가 큰 기회지만 존댓말과 뉘앙스는 사람이 검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기업 CES 혁신상 208 건→222 건… 2027 년 삼성전자 19 건·LG 전자 8 건

한국 기업은 CES 혁신상에서 AI 부문 존재감을 키워 왔다. CES 2025 에서 한국 기업은 전체 458 건 가운데 208 건(45.4%)을 받았고, CES 2026 에서는 222 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물리적 AI 와 AI 에이전트 부문 최고 혁신상을 모두 가져갔다.

CES 2027 혁신상 발표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고 혁신상 4 개를 포함해 19 개를 받았고, LG 전자는 투명·무선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의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8 개를 수상했다. 세라젬(Ceragem)은 AI 부문 수상작 ‘AI 웰니스 홈’을 포함해 혁신상 9 개를 받았다. 아트테크 부문에서는 가천대와 페르소나 AI 의 아나모픽 미디어월용 AI 제작 도구 ‘아나모핏(Anamofit)’, 담가라·넥스텝스튜디오·가천대의 반응형 미디어 파사드 ‘스케이프싱크(SCAPESYNC)’가 이름을 올렸다.



CES 혁신상 한국 기업 수상 건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KOTRA



CES 2025 당시 LVCC 웨스트홀. 사진=Xuthoria(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현장 관람 포인트… LVCC 노스홀·퐁텐블로·스피어

AI 는 LVCC 노스홀에서 지멘스(11512·11914 번 부스) 등 산업 AI 전시를 보고, 개막 전날인 5 일 오전 11 시 LVCC 웨스트홀 W232 에서 PwC 의 ‘물리적 AI: 경영진의 말과 실제 예산’ 세션을 들을 수 있다.

6 일 오후 2 시 베네치안 팔라초 볼룸에서는 워너뮤직 기조연설이, 오후 5 시 스피어에서는 레노버 ‘테크 월드 @ CES’가 열린다.

전망… 에이전트의 비용과 검증이 다음 질문

CTA 는 AI 를 따로 파는 기능이 아니라 기기와 서비스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기술로 소개했다. 개막 전후 세션 제목에도 경영진의 실제 예산(PwC), 작업당 비용(인텔)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AI 탑재 여부보다 에이전트가 맡은 작업의 비용과 결과를 따지는 대화가 CES 2027 현장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빙·음성·제작 자동화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한국 콘텐츠·미디어 기업에는 일레븐랩스 같은 음성 AI 기업과 할리우드 AI 세션이 같은 주에 열리는 일정이다.

참고 자료

· CES, "CES Tech Trends: AI" (YouTube)
· audioXpress, "CES Returns in January with AI, Connected Mobility…" (Oct. 8, 2026)
· CES, CES Foundry

· CES, "CES Foundry: The Powerful New Hub for AI and Quantum Innovation"
· Siemens, Siemens at CES
· CES schedule, "CES 2027 Trends to Watch"
· CES schedule, "The Agentic Shift: AI Tools Transforming Work"
· Radio World, "Exhibitor Viewpoint: ElevenLabs at the 2026 NAB Show"
· PR Newswire, Warner Music Group CEO Robert Kyncl keynote at CES 2027
· Digital Hollywood, CES 2027
· Asia Economy, CES 2025 Innovation Awards (Korean companies)
· Korea.net, Korean companies at CES 2026 Innovation Awards
· Samsung Newsroom, CES 2027 Innovation Awards
· CBS NoCut News, CES 2027 Innovation Awards
· The Korea Herald, CES 2027 Innovation Awards
· CES Innovation Awards, Art Tech category

CES 2027 미리보기

[CES2027] 1 월 7 일 버라이어티 서밋, 할리우드 경영진의 의제는 광고와 팬덤

디즈니·넷플릭스·NBC 유니버설·폭스·스카이댄스 광고 수장 한 무대… 스피어·F1·틱톡까지 연사 36 명, CES 등록자 무료. 같은 날 저녁 5 시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

한정훈 기자 · 2026 년 11 월 19 일

한줄요약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이 내년 1 월 7 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아리아에서 열린다. 10 개 순서 연사 36 명 가운데 13 명이 광고·마케팅 책임자이고, 디즈니·넷플릭스·NBC 유니버설·폭스·스카이댄스 광고 수장이 한 세션에 선다. 스트리밍 생애가치 데이터, 마이크로드라마, 스피어·F1 의 팬덤 전략, AI 도입 세션이 뒤를 잇는다. CES 등록자는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같은 날 저녁 5 시에는 웨이빙 엔터테크 서밋에서 한국 엔터테크 기업이 피칭한다.



사진=Jim G(CC BY 2.0)·위키미디어 공용

CES 2027 에서 할리우드 경영진이 앞세운 의제는 광고와 팬덤이다.

미국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Variety)는 내년 1 월 7 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아리아(ARIA) 컨벤션센터 동관 조슈아 9·10 홀에서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Variety Entertainment Summit)을 연다.

오전 9 시 15 분 첫 패널부터 오후 4 시 45 분에 끝나는 마케팅 최고책임자(CMO) 라운드테이블까지 10 개 순서에 연사 36 명이 나온다.

연사 36 명 가운데 13 명이 광고 영업·마케팅 책임자다.

오전 10 시 50 분 세션에는 마크 마셜(Mark Marshall) NBC 유니버설(NBCUniversal) 광고·파트너십 회장, 리타 페로(Rita Ferro) 월트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 글로벌 광고 사장, 에이미 라인하드(Amy Reinhard) 넷플릭스(Netflix) 광고 사장, 제이 애스키나시(Jay Askinasi) 스카이댄스(Skydance) 광고 최고매출책임자, 제프 콜린스(Jeff Collins) 폭스(FOX) 광고영업·마케팅 사장이 함께 앉는다.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 다섯 곳의 광고 수장이 한 패널에 모였다.

광고에 무게가 실린 것은 스트리밍 수익 구조가 바뀌어서다.

오전 10 시 15 분 발표를 맡은 에르난 로페스(Hernan Lopez) 오울앤코(Owl & Co) 창업자는 스트리밍 매출 성장의 대부분이 가입자 확보가 아니라 최적화와 광고에서 나오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자사 분석 서비스 스트리밍 LTV(StreamingLTV)의 새 데이터로 어떤 서비스·요금제·유통 경로가 생애가치(LTV)를 가장 많이 만드는지 공개한다.

버라이어티는 이 결과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책정, 유통사의 협상, 투자자의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룬다고 소개했다.

서밋은 CES 등록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열린다. CES 표준 배지는 11 월 30 일까지 149 달러(약 20 만원), 12 월 1 일부터 349 달러(약 47 만원)로 올라간다.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at CES 2027 공식 이미지. 자료=버라이어티

디즈니·넷플릭스·NBCU·폭스 광고 수장 한 무대… CTV·리테일 미디어·브랜드 통합

광고 세션의 제목은 '파워 플레이어: 미디어 비즈니스(The Power Players: Business of Media Unlocked)'다.

커넥티드 TV(CTV),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브랜드 통합, 기본으로 돌아간 광고 캠페인까지 넓어진 도달 방식을 놓고, 미디어 그룹이 브랜드의 플랫폼 선택을 어떻게 돕는지, 브랜드가 기술 변화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를 묻는다.

라훌 가우탐(Rahul Gautam) EY 글로벌 TMT 컨설팅 리더가 함께한다. 페로 사장과 라인하드 사장은 2026 년 서밋에도 연사로 나왔다.

광고를 사는 쪽은 마지막 순서에 오른다.

오후 4 시 5 분 CMO 라운드테이블에는 페르난도 마샤두(Fernando Machado) 치폴레(Chipotle) 최고브랜드책임자, 브누아 바테르(Benoit Vatere) 리퀴드 데스(Liquid Death) 최고미디어·디지털커머스책임자, 수잰 필리온(Suzanne Philion) 웨이모(Waymo) CMO, 페기 로(Peggy Roe)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 최고고객책임자, 라이언 개빈(Ryan Gavin) 슬랙(Slack) CMO 가 나와 디지털부터 옥외까지 어디에 노출해야 효과가 큰지 이야기한다.

오후 1 시 45 분 헤드라이너 대담에는 제니 스톰스(Jenny Storms) NBC 유니버설 TV·스트리밍 CMO 와 방송인 겸 팟캐스터 보스턴 롭(Boston Rob)이 나온다.

시간	세션	연사 소속
9:15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썬더로드 필름스·블룸하우스 아토믹·소니 픽처스·버전트 미디어·딜로이트
9:50	기조 대담	데브라 오코넬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회장
10:15	스트리밍의 다음 단계: 가입자 확보에서 생애가치로	오울앤코
10:50	파워 플레이어: 미디어 비즈니스	NBC 유니버설·디즈니·스카이댄스·넷플릭스·폭스·EY
11:45	새로운 스토리텔링	틱톡·핀터레스트·넷플릭스
1:45	헤드라이너 대담	NBC 유니버설 TV·스트리밍, 방송인 보스턴 롭
2:10	C 레벨 대담	바니제이 아메리카스·브릴스타인·폭스 엔터테인먼트

시간	세션	연사 소속
2:45	팬덤의 미래	스피어·레딧·F1·스포티파이·메타
3:25	AI 도입	원더 프로젝트·폭스·해즈브로 식스웰·세일즈포스·조지 알티도어
4:05	CMO 라운드테이블	치폴레·리퀴드 데스·웨이모·메리어트·슬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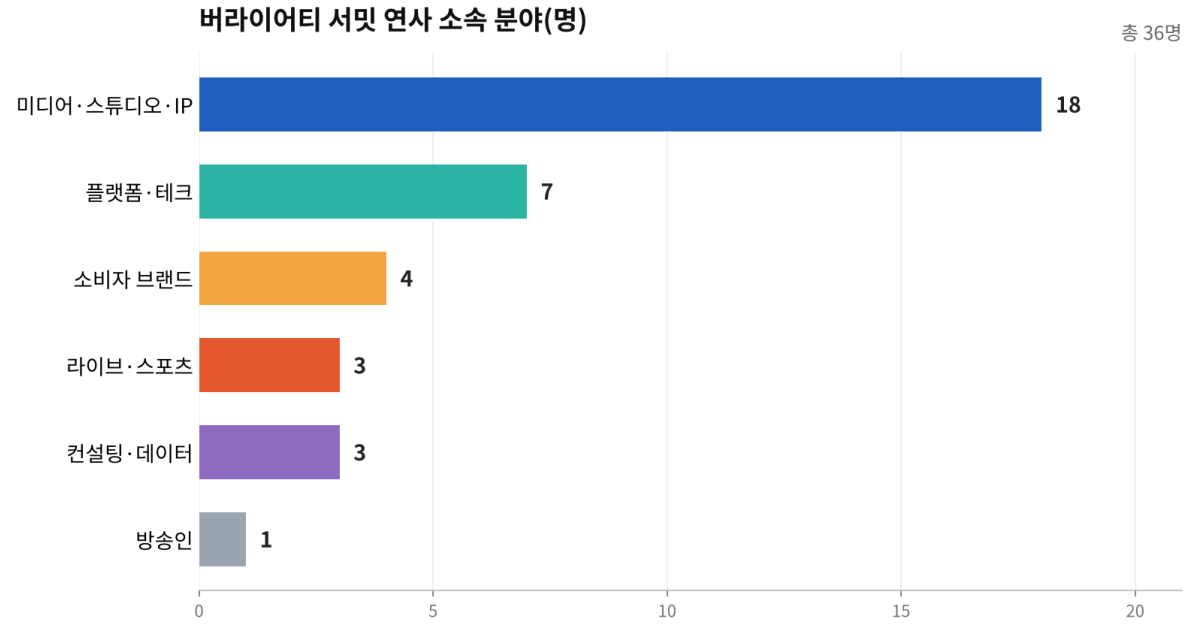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2027 순서(미 태평양 시간). 자료=버라이어티

디즈니 TV 수장 기조 대담… 블룸하우스·소니·바니제이가 진단하는 산업

오전 9 시 50 분 기조 대담은 데브라 오코넬(Debra O'Connell)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Disney Entertainment Television) 회장이 맡는다.

앞선 9 시 15 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패널에는 영화 '존 윅' 시리즈 제작사 썬더로드 필름스(Thunder Road Films)의 배질 이와닉(Basil Iwanyk) 창업자, 아비제이 프라카시(Abhijay Prakash) 블룸하우스 아토믹(Blumhouse Atomic) 사장, 피트 우드(Pete Wood)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 소비자 플랫폼·서비스 부사장, 밸 보어랜드(Val Boreland) 버전트 미디어(Versant Media) 엔터테인먼트 사장, 스테파니 돌런(Stephanie Dolan) 딜로이트 컨설팅 미국 엔터테인먼트 리더가 나와 TV·영화·팟캐스트·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넘나드는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오후 2 시 10 분 C 레벨 대담에서는 벤 사멕(Ben Samek) 바니제이 아메리카스(Banijay Americas) CEO, 존 리브먼(Jon Liebman) 브릴스타인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스(Brillstein Entertainment Partners) 회장, 롭 웨이드(Rob Wade) 폭스 엔터테인먼트(Fox Entertainment) CEO 가 올라야 할 흐름과 무시해도 될 흐름, 사업의 가장 큰 과제를 짚는다.



연사 36 명 소속 분야. 자료=버라이어티 공개 일정(11 월 19 일 확인), K 엔터테크허브 집계

틱톡·핀터레스트·넷플릭스… 마이크로드라마·팟캐스트가 '새 스토리텔링'

오전 11 시 45 분 '새로운 스토리텔링(New Storytelling Elite)' 세션은 팟캐스트, 마이크로드라마, 소셜·디지털 시리즈를 다룬다.

데니스 파피로프스키(Dennis Papirowski) 틱톡(TikTok)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 데이비드 브링커(David Brinker) 핀터레스트(Pinterest)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 만시 파텔(Mansi Patel) 넷플릭스 새로운 콘텐츠 경험 담당 부사장이 지금 관객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설명한다.

이틀 앞선 1 월 5 일에는 같은 아리아 조슈아 9 홀에서 디지털 할리우드(Digital Hollywood)가 '마이크로드라마와 버티컬 네트워크' 세션을 연다. 세로형 짧은 드라마는 CES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두 곳에서 각각 독립 세션으로 다뤄진다.



2026 년 1 월 아리아에서 열린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패널. 사진=버라이어티

스피어·F1·레딧·스포티파이·메타… 팬덤은 메시지보다 경험

오후 2 시 45 분 '유레카! 팬덤 채굴의 미래(Eureka! The Future of Mining Fandom)'에는 제니퍼 케스터(Jennifer Koester) 스피어(Sphere) 사장, 짐 스콰이어스(Jim Squires) 레딧(Reddit) CMO, 에밀리 프레이저(Emily Prazer) 포뮬러원(Formula 1) 최고사업책임자 겸 F1 라스베이거스 익스피리언스 사장, 제니 해거드(Jenny Haggard) 스포티파이(Spotify) 글로벌 소트리더십 책임자, 데이브 코프먼(Dave Kaufman) 메타(Meta) 리얼리티랩스 글로벌 마케팅 시니어 디렉터가 나온다.

버라이어티는 관객의 관심이 수많은 선택지로 흩어진 상황에서 메시지 대신 경험을 내놓는 것이 팬덤을 만드는 데 결정적일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밝혔다.

스피어와 F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는 개최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대표 베뉴다.

경험으로 팬을 모으는 방식은 지난 3 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ICNX 2026 에서도 논의됐다.

SM 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 자회사 스튜디오 리얼라이브(Studio Realive)의 김종민(Kim Jong-min) 대표는 VR 콘서트 브랜드 링크팝(LYNKPOP)을 도쿄 백화점 지하와 홍콩 쇼핑몰 상영관에서 공연·전시·한정 상품과 묶어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헤드셋은 혼자 쓰는 장비인데 관객은 함께 보러 왔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회차별 입장권을 여행 예약 플랫폼과 편의점에서 팔았다.

▶ 영상 보기 (유튜브, 1 분 39 초부터)

김종민 스튜디오 리얼라이브 대표 ICNX 2026 발표 영상. 영상=K 엔터테크허브

오후 3 시 25 분 AI 세션은 도입 여부보다 통제 방식을 다룬다.

존 어윈(Jon Erwin) 원더 프로젝트(Wonder Project) 창업자, 멜로디 힐데브란트(Melody Hildebrandt) 폭스 코퍼레이션 최고기술책임자(CTO), 로버타 톰슨(Roberta Thomson) 해즈브로(Hasbro) 식스월(Sixth Wall) CEO, 조 인저릴로(Joe Inzerillo) 세일즈포스(Salesforce) 엔터프라이즈·AI 사장, MLS 챔피언 출신 투자자 조지 알티도어(Jozy Altidore)가 사람의 창의성을 지키면서 AI 로 새 사업을 만드는 방법을 논의한다.



아리아 조슈아홀에서 열린 지난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서밋 현장. 사진=버라이어티

한국 방송광고 1 년 새 12.3% 감소… 2025 년 무대엔 웹툰엔터 단독 대담

미국 미디어 그룹이 광고를 성장 축으로 내세우는 사이 한국 방송 시장은 광고에서 매출이 빠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가 지난 6 월 19 일 공표한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서 방송사업매출은 18 조 6495 억원(약 139 억 달러)으로 3 년 연속

줄었고, 방송광고매출은 1 년 만에 12.3% 감소했다고 기자협회보(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가 전했다. 지상파는 3 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버라이어티 서밋 무대에 한국계 기업이 단독으로 선 사례는 있다.

2025 년 1 월 8 일 서밋에서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WEBTOON Entertainment)의 데이비드 리(David J. Lee)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재무책임자가 웹툰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키우는 방식을 주제로 대담했다. 2027 년 공개 일정에 한국 기업 연사는 없다.

광고·팬덤·새 포맷이 각각 독립 세션을 얻은 이번 구성은 CTV·FAST 로 해외 광고 매출을 찾는 한국 방송사와 숏폼 드라마·웹툰 사업자가 미국 광고주와 플랫폼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현장 관람 포인트… 5 일 디지털 할리우드, 6 일 WPP·워너뮤직 기조연설

엔터테인먼트는 1 월 5 일과 7 일에 몰린다. 5 일 아리아에서 디지털 할리우드(Digital Hollywood)가 시네마틱 AI 와 마이크로드라마 세션을 열고, 7 일에는 아리아 조슈아 9·10 홀에서 버라이어티 서밋이 오전 9 시 15 분부터 오후 4 시 5 분까지 이어진다. 크리에이터 경제는 LVCC 센트럴홀 크리에이터 스페이스에서 다룬다.

개막일인 6 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영자 두 명이 CES 기조연설 무대에 선다.

영국 광고 지주회사 WPP 의 신디 로즈(Cindy Rose) 최고경영자가 오전 11 시 아리아에서, 로버트 킨클(Robert Kyncl) 워너뮤직그룹 최고경영자가 오후 2 시 베네치안 팔라초 볼룸에서 연설한다. 버라이어티 서밋 하루 전에 광고와 음악의 방향을 먼저 들을 수 있다.

전망… 연사 추가 가능성, 광고·팬덤 기준이 2027 년 거래의 출발점

버라이어티는 세션별 진행자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2 월 중순 연사와 세션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공개분만 놓고 보면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은 광고 영업, 브랜드 마케팅, 팬덤, 새 포맷, AI 통제를 각각 별도 주제로 세웠다.

1 월 5 일 디지털 할리우드, 6 일 C 스페이스 키노트, 7 일 버라이어티 서밋으로 이어지는 CES 엔터테인먼트 일정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파트너와 나눌 대화도 광고 단가와 팬 경험을 어떻게 수익으로 바꾸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은 1 달러=1340 원(11 월 중순 서울 외환시장 종가 수준) 기준. 큰따옴표 없이 쓴 발언·설명은 버라이어티 공식 일정 페이지의 세션 소개를 요약한 것이다.

참고 자료

· Variety Entertainment Summit at CES 2027 — 공식 일정(events.variety.com)

· Variety Entertainment Summit at CES 2026 — 공식 일정

· Variety, Variety Announces Additional Speakers and Sessions for Expanded CES 2026 Programming(2025 년 12 월)

· Variety, How Webcomics Are Fueling The Global Entertainment Market(2025 년 1 월 8 일 세션)
· CES 2027 등록 배지 가격(ces.tech)
· CES 2027 공식 일정 — 아리아(ces.tech)
· Digital Hollywood at CES 2027
· 기자협회보, 방송, 잘 만들수록 손해인 구조 벗어날 수 있을까(2026 년 6 월 23 일)
· K 엔터테크허브, CES 2027 엔터테크 종합 안내
· K 엔터테크허브, CES 2027 엔터테크 서밋 프로그램

CES 2027 테크 트렌드

[CES2027] 로봇 화두는 ‘현장 배치’ … 1 월 6 일 개막, 산업용 로봇·제조 프로그램 확대

CTA 공식 트렌드 영상 ‘인간-로봇 협업’ 제시… 혁신상 로봇 부문 출품 74% 증가, 애질리티·뉴라·다이나 로보틱스 참가

한정훈 기자 · 2026 년 11 월 19 일

한줄요약

CES 2027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대규모 현장 배치와 인간-로봇 협업이다. 산업용 로봇·제조 프로그램이 늘었고, 혁신상 로봇 부문 출품은 74% 증가했다. 올 상반기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60% 이상은 엔터테인먼트·공연과 연구용이었다. 한국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고레로보틱스가 혁신상을 받았다.



썸네일. CES 2025 에 전시된 로봇. 사진=Arthur Petron(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CES 2027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대규모 현장 배치와 인간-로봇 협업이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18 일 CES 공식 유튜브 채널에 1 분 9 초 길이의 ‘CES 테크 트렌드: 로보틱스(CES Tech Trends: Robotics)’ 영상을 올렸다.

공동 진행자 브라이언 통(Brian Tong)과 저스틴 이자릭(Justine Ezarik)은 로봇이 따로 떨어진 단일 기계에서 대규모로 배치되는 시스템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진짜 시험대는 통제된 시연장 밖에서 로봇이 어떻게 일하느냐”라고 말했다. 시험이 이뤄지는 곳으로는 공장, 물류창고, 가정, 의료, 운송을 꼽았다.

진행자들은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이번 트렌드의 중심에 뒀다. 일상과 상업 업무에 쓸 믿을 만한 해법을 찾는 수요가 로봇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고, 로봇이 대규모로 배치될 때 협업의 효과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CES 2027 은 이를 반영해 산업용 로보틱스와 제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새로 넣었다.

CTA 는 주목할 출품사로 애질리티 로보틱스(Agility Robotics), 뉴라 로보틱스(NEURA Robotics), 다이나 로보틱스(Dyna Robotics)를 꼽았다.



CES 공식 영상 ‘CES 테크 트렌드: 로보틱스’. 자료=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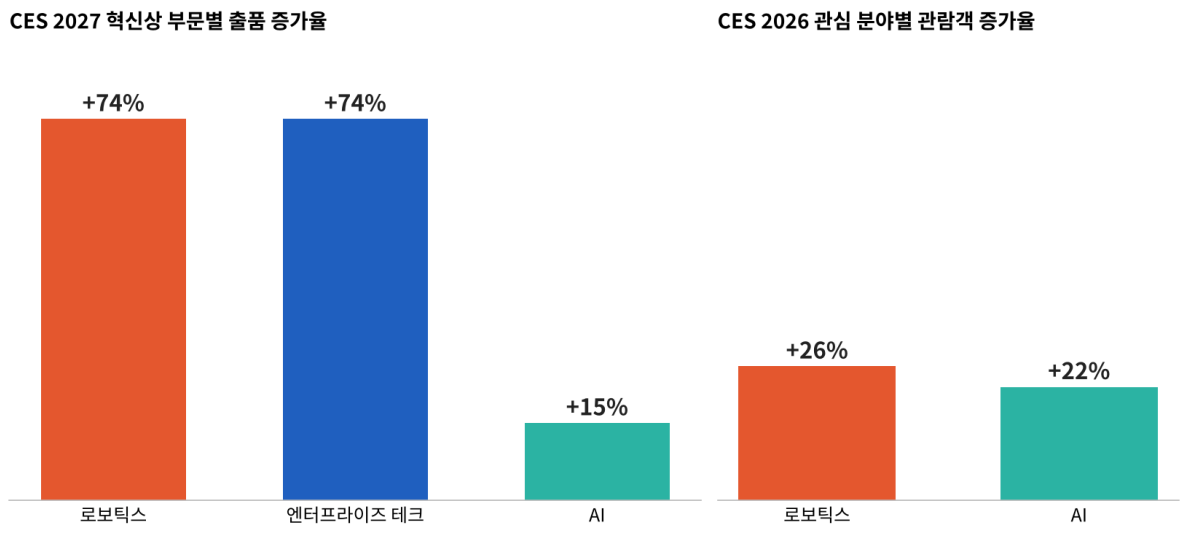
혁신상 로봇 부문 출품 74% 증가… 로봇 관심 관람객 26% 늘어

CTA 가 9 일 발표한 CES 2027 혁신상에는 약 4000 건이 출품돼 1 년 전보다 10% 늘었다. 출품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로보틱스와 엔터프라이즈 테크로 각각 74% 늘었고, AI 는 15% 늘었다. 로보틱스 부문 최고 혁신상은 중국 갤봇(GALBOT)의 휴머노이드 ‘갤봇 ET1’이 받았다.

관람객 관심도 로봇 쪽으로 움직였다.

CTA 감사 집계에서 CES 2026 참가자 가운데 로보틱스에 관심을 보인 참가자는 26%, AI 관심 참가자는 22% 늘었다고 오디오익스프레스(audioXpress)가 전했다. CES 는 2027 년 LVCC 와 베네치안 엑스포를 도는 ‘물리적 AI 의 다음 물결(Next Wave of Physical AI)’ 투어도 운영한다.

킨지 파브리치오(Kinsey Fabrizio) CTA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10 월 14 일 서울 코엑스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의 손동작과 조작 능력이 발전하면서 활용 범위가 산업 현장에서 가정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ES 2027 휴머노이드 참가 기업도 올해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CES 2027 혁신상 부문별 출품 증가율과 CES 2026 관심 분야별 관람객 증가율. 자료=CTA·오디오익스프레스

애질리티 '디지트 5'·뉴라 '4NE1'·다이나 'DYNA 2.1'… 영상이 꼽은 출품사

애질리티 로보틱스는 2020 년 CES 에서 이족보행 로봇 디지트(Digit)를 처음 선보인 회사다. 이후 물류·제조 현장으로 사업을 좁혔다. 신형 '디지트 5'는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자율로 일하도록 만든 휴머노이드로, CES 2027 혁신상 로보틱스·공급망·물류 부문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 뉴라 로보틱스는 CES 2026 에서 휴머노이드 4NE1 차세대 모델과 소형 '4NE1 미니', 4 족 보행 로봇을 공개했다. 여러 로봇이 학습한 기술을 주고받는 플랫폼 '뉴라버스(Neuraverse)'를 함께 내세웠고, 1 월에는 보쉬(Bosch)와 독일산 휴머노이드 생산 협력을 발표했다.

미국 다이나 로보틱스는 CES 2026 부스에서 빨래를 개는 로봇을 시연했다. 이후 1 억 2000 만 달러(약 1620 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8 월 100 만 시간 이상의 사람 영상으로 학습한 로봇 모델 'DYNA-2'를 공개했다. 9 월 29 일에는 상업 세탁소의 한 교대 근무를 사람 개입 없이 처리하는 반(半)휴머노이드 'DYNA 2.1'을 출시했다. 린던 가오(Lindon Gao) 최고경영자는 "범용 로봇을 실제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휴머노이드 출하량 60%는 공연·연구용… 테마파크에 로봇 300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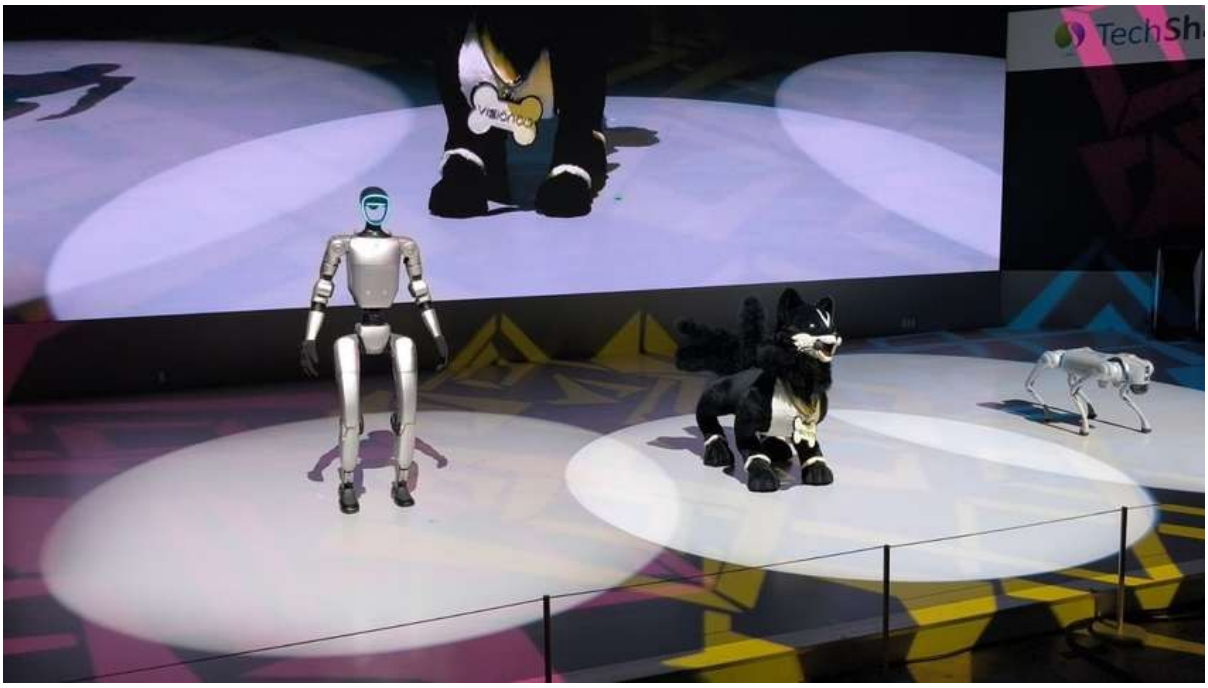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는 올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2 만 2000 대를 넘어 1 년 전보다 약 300% 늘었다고 8 월 집계했다. 엔터테인먼트·공연용과 데이터 수집·연구용을 합친 비중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60%를 넘었다. 연간 출하량은 5 만 대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IDC 집계로는 상반기 출하량이 2 만 5000 대에 가까웠고, 1 위 애지봇(AGIBOT)이 8600 대 이상을 출하했다. 애지봇은 중국 주하이 헝친의 창룽 스페이스십 파크(Chimelong Spaceship Park)에 로봇 300 대 이상을 배치해 공연, 관람 안내, 판매, 교육 업무에 쓰고 있다.

로봇의 얼굴과 손도 관객을 상대하는 기술로 바뀌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는 휴머노이드 전용 ‘리얼 페이스 디스플레이’로 CES 2027 혁신상을 받았다.

별도 장치 없이 소프트웨어 제어만으로 여러 표정을 만들고, 시선 추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보는 각도에 맞춰 로봇의 표정과 시선이 반응한다. CTA 트렌드 영상 첫 장면에 나오는 휴머노이드는 로봇 손 전문 기업 샤르파(Sharpa) 제품이다.

샤르파는 CES 2026 에서 손의 정교함을 보여 주려고 전신 로봇을 처음 공개했다.



재팬 모빌리티쇼 2025 무대에서 공연하는 휴머노이드와 로봇. 사진=RuinDig/Yuki Uchida(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한국 로봇, CES 2026 혁신상 15 개 중 8 개… 2027 년 고레로보틱스·LG 디스플레이

CES 2026 로보틱스 부문 혁신상 15 개 가운데 8 개는 한국 기업 제품이었고, 고레로보틱스·나비프라·휴로틱스·휴머닉스 등 스타트업 4 곳이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CES 2026 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Atlas)를 처음 공개했고, 모베드(MobED)로 로보틱스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K-휴머노이드 연합(K-Humanoid Alliance)은 노스홀에 로봇 전용관을 처음 열었다.

CES 2027 혁신상에서는 고레로보틱스(Kore Robotics)가 6m 배관을 옮기는 건설 로봇 ‘ND-1’로 수상했다. LG 이노텍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에 쓰는 물리적 AI 용 부품을 CES 2027 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현장 관람 포인트… 노스홀·베네치안 공식 투어

로봇은 LVCC 노스홀과 베네치안 엑스포에 흩어져 있어, CTA 가 두 곳에 각각 운영하는 공식 투어 ‘넥스트 웨이브 오브 피지컬 AI(The Next Wave of Physical AI)’가 동선을 줄여 준다. 7 일에는 베네치안 4 층 란도 4304 호에서 푸드 로봇 세션 ‘Physical AI in Food’가 열린다.

전망… 시연 동작에서 근무 시간과 성공률로

인터랙트 애널리시스(Interact Analysis)는 5 월 보고서에서 휴머노이드가 아직 대규모 상업 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격 확산 시점을 2032 년으로 봤다. 다이나는 한 교대 근무를 끝내는 로봇을, 애질리티는 사람 옆에서 일하는 물류 로봇을 내세웠다.

CES 2027 전시장에서는 춤과 시연 동작보다 근무 시간, 작업 성공률, 가격 같은 숫자가 더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연·테마파크·전시용 로봇이 출하량의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공연장과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에도 CES 2027 은 로봇 도입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다. 표정 디스플레이와 정교한 로봇 손처럼 관객과 마주하는 부품에서 한국 기업이 혁신상을 받은 점도 같은 흐름에 있다.

환율은 1 달러=1350 원 기준. 큰따옴표는 보도·영상에서 나온 발언, 따옴표 없는 인용은 요약이다.

참고 자료

· CES, "CES Tech Trends: Robotics" (YouTube, Nov. 18, 2026)
· CTA, "CTA Announces CES Innovation Awards 2027 Honorees" (Nov. 9, 2026)
· audioXpress, "CES 2027 Returns January 6-9…" (Oct. 8, 2026)
· iNews24, CES 2027 press conference in Seoul (Oct. 14, 2026)
· CES Innovation Awards 2027, Agility Digit 5
· A3 Automate, "How Humanoids Took Center Stage at CES 2026"
· Control.com, NEURA Robotics at CES 2026 (Jan. 8, 2026)
· The Robot Report, NEURA Robotics partners with Bosch (Jan. 16, 2026)
· heise online, Dyna robot folds laundry at CES 2026
· Robotics 24/7, Dyna Robotics unveils DYNA-2 (Aug. 24, 2026)
· PR Newswire via Webull, DYNA Robotics launches DYNA 2.1 (Sept. 29, 2026)
· Counterpoint Research, Global humanoid robot shipments H1 2026 (Aug. 2026)
· Robotics & Automation News, IDC humanoid shipments H1 2026 (Oct. 2, 2026)
· JoongAng (Korea Daily), CES 2027 Innovation Awards for Korean firms (Nov. 9, 2026)
· TechCrunch, "I met a lot of weird robots at CES" (Jan. 9, 2026)
· Money Today, Korean startups in CES 2026 robotics awards (Dec. 26, 2025)
· Hyundai Motor Group, CES 2026 exhibition
· Trade Show Executive, CES 2026 preview
· Venture Square, Kore Robotics wins CES 2027 Innovation Award (Nov. 9, 2026)
· Herald Corp, LG Innotek and LG Display CES 2027 awards
· Automation.com / Interact Analysis, Humanoid robot revenue to reach $15bn by 2035 (May 2026)

CES 2027 테크 트렌드

[CES2027] 헬스테크 화두는 ‘해석과 다음 행동’ … 1 월 6 일 개막, 베네치안에 애보트 헬스 허브 신설

CTA 공식 트렌드 영상 ‘데이터 수집 넘어 해석·안내’ 제시… 덱스콤·AARP 에이지테크·울트라휴먼 주목, 세라젬 혁신상 9 개

한정훈 기자 · 2026 년 11 월 19 일

한줄요약

CES 2027 이 헬스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건강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음 행동으로 잇는 기술이다. 베네치안 헬스 전시장 한가운데에 애보트가 후원하는 CES 헬스 허브가 새로 생긴다. 덱스콤, AARP 에이지테크 콜라보레이티브, 울트라휴먼이 주목 기업으로 꼽혔고, 한국에서는 세라젬이 혁신상 9 개를 받았다.



썸네일. 팔에 붙인 연속혈당측정 센서를 리더기로 읽는 모습. 사진=Thirunavukkarasye-Raveendran(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CES 2027 이 헬스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건강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음 행동으로 잇는 기술이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18 일 CES 공식 유튜브 채널에 1 분 6 초 길이의 ‘CES 테크 트렌드: 헬스(CES Tech Trends: Health)’ 영상을 올렸다.

공동 진행자 브라이언 통(Brian Tong)과 저스틴 이자릭(Justine Ezarik)은 이번 CES 에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사람들이 건강 정보를 해석하고 가능한 다음 단계로 잇도록 돕는 기술을 눈여겨보라고 소개했다.

잠재적 문제를 찾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하고, 행동을 안내하고, 더 넓은 기술 생태계와 연결하는 개인 맞춤형·선제적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CTA 는 AI, 연속 모니터링, 원격 지원, 접근성,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 웰니스 분야의 혁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진행자들은 “CES 는 삶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헬스테크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기업으로는 덱스콤(Dexcom), AARP 의 에이지테크 콜라보레이티브(AgeTech Collaborative), 울트라휴먼(Ultrahuman)을 꼽았다.



CES 공식 영상 ‘CES 테크 트렌드: 헬스’. 자료=CES

베네치안에 ‘CES 헬스 허브’ 신설… 애보트 후원, 헬스 스테이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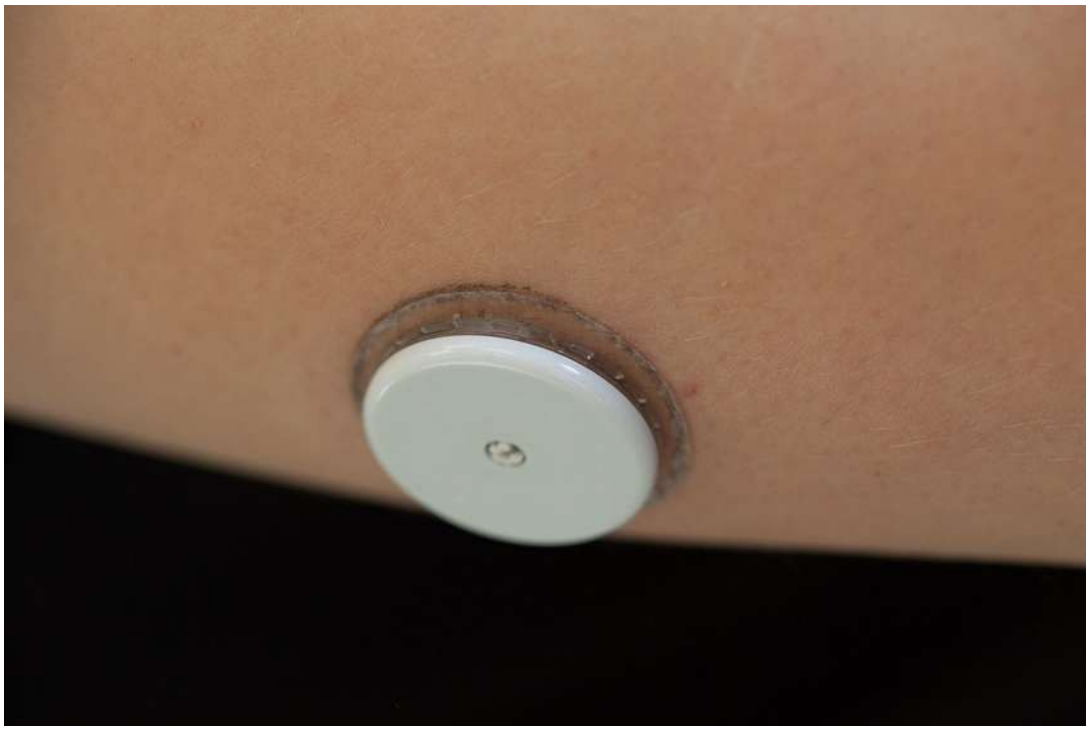
CTA 는 헬스 논의를 한눈에 보려면 베네치안 엑스포(Venetian Expo)의 새 CES 헬스 허브(CES Health Hub)를 찾으라고 안내했다.

애보트(Abbott)가 후원하는 이 허브는 CES 2027 에서 처음 생기는 공간으로, 베네치안 헬스 전시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는다.

헬스 스테이지(Health Stage) 강연과 기술 체험, 의료진·투자자·미디어 네트워킹이 한곳에서 열린다.

1 월 7 일 헬스 스테이지에서는 애보트가 ‘추적을 넘어: 건강 데이터를 더 나은 결과로’ 세션을 연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제노 메디컬(Xenco Medical)이 AI 비전으로 운동선수의 디지털 표현형을 장기 분석하는 방법을 발표한다.

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리브레 듀오’ 시스템은 CES 2027 혁신상 디지털 헬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애보트는 CES 2026 에서는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와 바이오웨어러블 대담을 열었다.



팔에 부착한 애보트 프리스타일 리브레 연속혈당측정 센서. 사진=Thirunavukkarasye-Raveendran(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덱스콤 G8 50% 작게… AARP 스타트업 22 곳, 울트라휴먼 반지

연속혈당측정기 기업 덱스콤은 CES 2026 을 제이크 리치(Jake Leach) 신임 최고경영자의 첫 공개 무대로 삼았다. 덱스콤의 2025 년 매출은 47 억 달러(약 6 조 3000 억원)로 16% 늘었다. 덱스콤은 기존 G7 보다 50% 작은 차세대 G8 을 2027 년 말이나 2028 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다.

AARP 의 에이지테크 콜라보레이티브는 50 세 이상을 겨냥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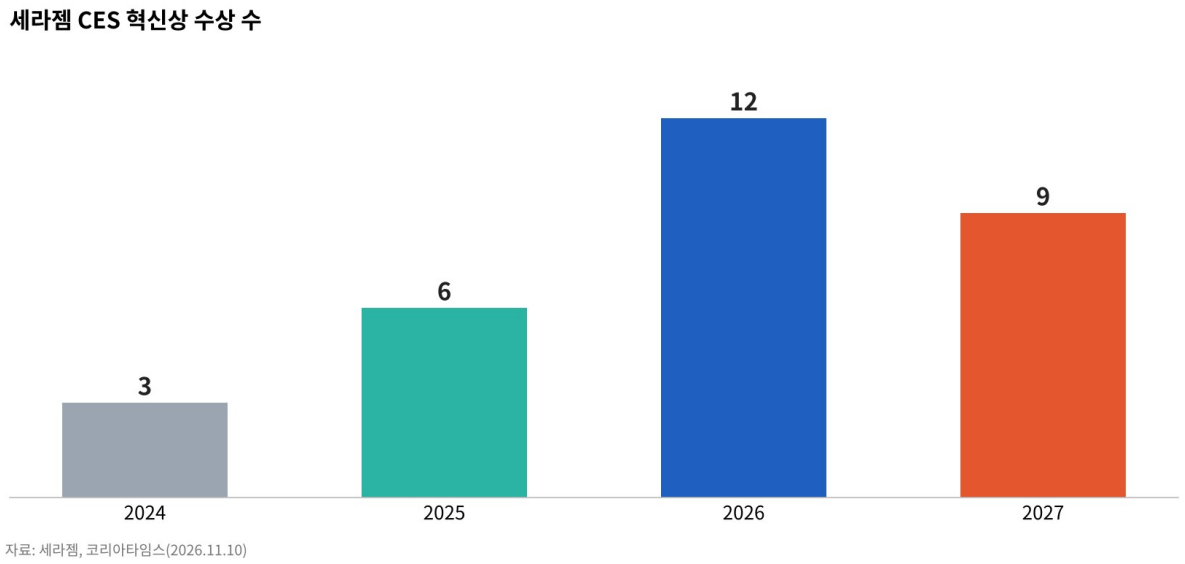
CES 2026 부스에서는 스타트업 22 곳을 소개했고 그 가운데 3 분의 1 가까이가 AI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CES 기간 피칭 대회 ‘에이지테크 애프터 다크(AgeTech After Dark)’에서는 대화를 실시간 자막으로 보여주는 스마트 안경 캡티파이(Captify)가 상금 1 만 달러를 받았다.

인도 울트라휴먼은 건강 측정 스마트 반지로 알려진 회사다. CES 2025 에서 18K 금·백금 도금의 고급 반지 ‘울트라휴먼 레어’를 공개했고, CES 2024 에서는 집 안 공기·빛·소음을 재는 ‘울트라휴먼 홈’을 내놨다.

디지털 헬스 참가 증가율 1 위… 세라젬 혁신상 9 개, 4 년 연속

코트라(KOTRA) 분석에 따르면 CES 2026 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 참가 기업은 1 년 전보다 약 7.4% 늘어 전체 산업군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CES 2026 혁신상 347 개 가운데 디지털 헬스 부문은 37 개로 AI 와 함께 가장 많은 수상작을 냈다.

한국 기업 가운데 세라젬(Ceragem)은 CES 2027 혁신상에서 제품 8 개로 상 9 개를 받았다. 4 년 연속 수상으로 누적 30 개다. 세라젬의 수상 수는 2024 년 3 개, 2025 년 6 개, 2026 년 12 개였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공동관에서는 나노미라클이 헬스케어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세라젬의 연도별 CES 혁신상 수상 수. 자료=세라젬·코리아타임스

선수·자막·노년… 엔터테인먼트와 맞닿은 헬스테크

제노 메디컬이 운동선수의 몸 상태를 AI 비전으로 분석하는 세션은 스포츠 중계와 구단 운영에 쓰이는 데이터와 맞닿아 있고, 캡티파이 같은 실시간 자막 안경은 공연·영상 관람의 접근성 문제와 이어진다. AARP 는 지난 몇 년 동안 CES 에 나온 에이지테크가 엔터테인먼트, 여행, 게임, 주거, 헬스, 모빌리티로 퍼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 관람 포인트… 베네치안 CES 헬스 허브

헬스는 베네치안 엑스포 헬스 전시장 한가운데 새로 생기는 CES 헬스 허브에서 시작하면 된다. 헬스 스테이지 강연과 체험, 의료진·투자자 네트워킹이 한곳에 모이고, 7 일 오전 11 시 45 분에는 애보트가 ‘추적 이후’를 주제로 세션을 연다.

전망… 측정 기기에서 해석·안내 서비스로

CTA 트렌드 발표와 애보트 세션 제목은 모두 ‘추적 이후’를 다룬다. 덱스콤은 센서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AI 음식 기록 같은 해석 기능을 늘리고 있고, 애보트는 혈당 데이터를 생활 습관 안내로 잇는 서비스를 내세운다.

CES 2027 헬스 전시장에서는 새 센서보다 데이터 해석과 안내, 다른 기기·서비스와의 연동을 보여주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웰니스 가전과 디지털 헬스에서 혁신상을 쌓아 온 한국 기업에는 측정 결과를 어떤 서비스로 잇는지가 다음 전시의 과제로 남는다.

환율은 1 달러=1350 원 기준. 큰따옴표는 보도·영상에서 나온 발언, 따옴표 없는 인용은 요약이다.

참고 자료

· CES, "CES Tech Trends: Health" (YouTube, Nov. 18, 2026)
· CES, CES Health Hub presented by Abbott
· CES schedule, "Beyond Tracking: Turning Health Data into Better Outcomes"
· CES Innovation Awards 2027, Abbott's Libre Duo systems
· Medical Design & Outsourcing, CES 2026 medical technologies (Jan. 12, 2026)
· Dexcom, Jake Leach as President and CEO (Jan. 7, 2026)
· Healthcare Brew, Dexcom's new CEO (Jan. 13, 2026)
· HLTH, Dexcom unveils G8 (May 15, 2026)
· AARP, AgeTech Collaborative at CES 2026 (Dec. 22, 2025)
· AARP, Captify wins AgeTech After Dark 2026
· TechRadar, Ultrahuman Rare at CES 2025
· TechCrunch, Ultrahuman Home (Jan. 9, 2024)
· Daily Pharm, KOTRA CES 2026 digital health analysis
· Money Today, CES 2026 digital health awards (Dec. 27, 2025)
· The Korea Times, Ceragem earns 9 CES Innovation Awards (Nov. 10, 2026)
· MTN, Jeonbuk companies win CES 2027 Innovation Awards (Nov. 10, 2026)

CES 2027 테크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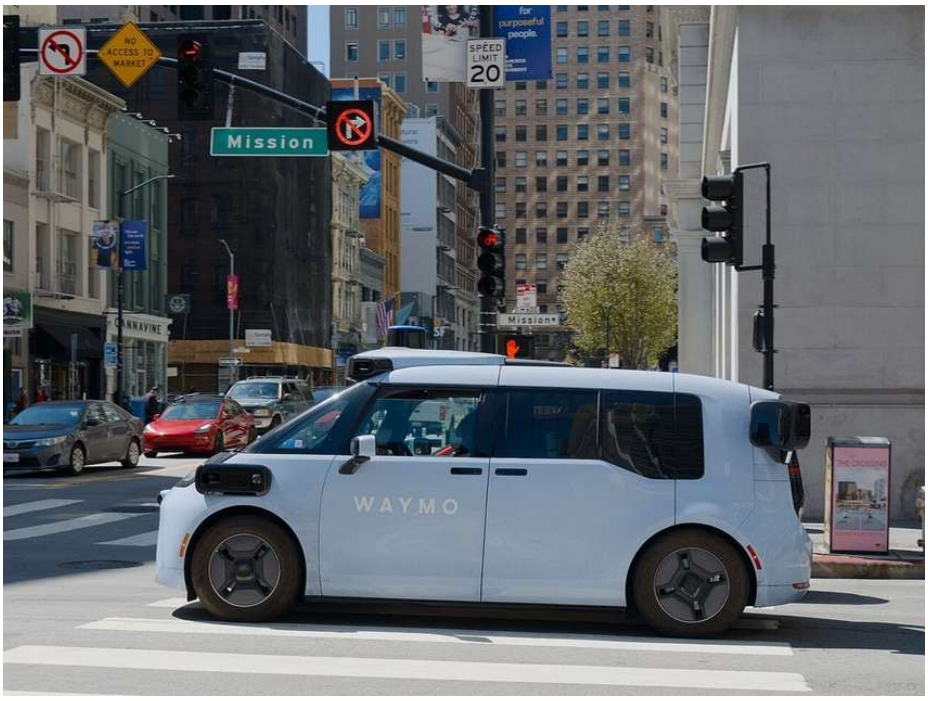
[CES2027] 모빌리티 화두는 ‘소프트웨어 정의’ … 1 월 6 일 개막, 차량 기술 전시 역대 최대

CTA 공식 트렌드 영상 ‘하늘·땅·바다 잇는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 제시… 웨이모·스텔란티스 기조연설, 포드·지리·소나투스 웨스트홀 참가

한정훈 기자 · 2026 년 11 월 19 일

한줄요약

CES 2027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소프트웨어 정의 모빌리티다. 자동차·선박·항공기·대중교통이 하나의 연결된 지능형 시스템으로 묶인다. 차량 기술 전시는 3 만 2500㎡ 이상으로 역대 최대이고, 웨이모와 스텔란티스가 기조연설을 한다. 기아와 LG 이노텍도 참가 명단에 올랐다.



썸네일. 샌프란시스코 미션 스트리트의 웨이모 오하이. 사진=Daniel Lu(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CES 2027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세운 화두는 소프트웨어 정의 모빌리티(software-defined mobility)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18 일 CES 공식 유튜브 채널에 1 분 23 초 길이의 ‘CES 테크 트렌드: 모빌리티(CES Tech Trends: Mobility)’ 영상을 올렸다.

공동 진행자 저스틴 이자릭(Justine Ezarik)과 브라이언 통(Brian Tong)은 모빌리티가 자동차를 넘어 선박, 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대중교통으로 넓어졌고, 개별 교통수단이 하나의 연결된 지능형 시스템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정의는 기능과 성능이 소프트웨어로 진화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차량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행자들은 이 흐름이 새 콘셉트카, 전기차, 자율주행 시연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량이 소프트웨어·서비스·인프라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함께 다뤄지며, AI 는 연결성·자율주행·데이터와 함께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LVCC 웨스트홀에서 볼 수 있고, 스텔란티스(Stellantis), 포드(Ford), 지리자동차(Geely Auto), 웨이모(Waymo), 소나투스(Sonatus)가 참가한다고 CTA 는 소개했다.



CES 공식 영상 ‘CES 테크 트렌드: 모빌리티’. 자료=CES

차량 기술 전시 3 만 2500㎡ 역대 최대… 웨이모 5 일·스텔란티스 6 일 기조연설

CTA 는 2 일 CES 2027 차량 기술 전시 면적이 35 만 제곱피트(약 3 만 2500㎡)를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발표했다. 전시는 웨스트홀과 센트럴 플라자 등에 걸쳐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른다. 개리 셔피로(Gary Shapiro) CTA 이사회 의장은 “CES 에서 본 모빌리티 혁신 기업 라인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개막 전날인 1 월 5 일 오후 6 시 30 분에는 테케드라 마와카나(Tekedra Mawakana) 웨이모 공동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한다.

6 일 오전 8 시 30 분에는 안토니오 필로사(Antonio Filosa) 스텔란티스 최고경영자가 무대에 오른다.

스텔란티스는 기조연설에서 새 차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하고, 웨스트홀 4518 번 부스로 이어간다. 모빌리티 무대는 보쉬(Bosch)가 후원한다.

참가 명단에는 AMD, 앱티브(Aptiv), BMW, 브런즈윅(Brunswick), 캐터필러(Caterpillar), 존디어(John Deere), 우버(Uber), 발레오(Valeo)와 함께 기아(Kia)와 LG 이노텍이 올랐다. CTA 집계로 CES 2026 모빌리티 분야 참가자는 1 만 5000 명을 넘었고 60%가 고위 경영진이었다.



트레일러에 실려 미국 101 번 고속도로를 지나는 웨이모의 로보택시 '오하이'. 사진=Mliu92(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차량 안 화면·결제·에이전틱 AI… 콘퍼런스 15 개 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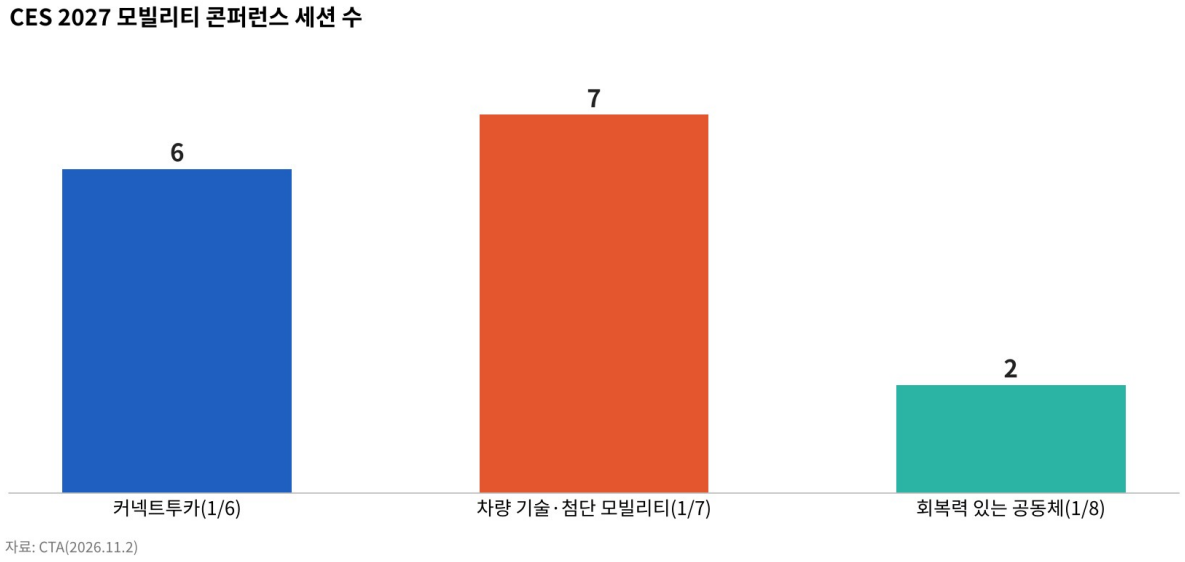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사흘 동안 세 트랙으로 열린다.

6 일 '커넥트투카(Connect2Car)' 트랙 6 개 세션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AI 와 보안, 차량 내 인터페이스 재설계, 차량 내 거래, 차량용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표준 데이터를 다룬다.

7 일 '차량 기술·첨단 모빌리티' 트랙 7 개 세션은 로보택시 사업 모델, 자율주행 화물, 에너지 자산으로서의 전기차, 차량 데이터 수익화를, 8 일 '회복력 있는 공동체' 트랙은 스마트 시티와 마이크로모빌리티를 다룬다.

CTA 가 꼽은 출품사 가운데 소나투스는 차량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제프 추(Jeff Chou) 최고경영자는 CES 2026 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이 승용차부터 상용 트럭까지 차량 개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포드는 CES 2026 에서 공개한 AI 비서를 2026 년 앱에 먼저 넣고, 2027 년에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탑재한다.

지리자동차는 CES 2026 에서 지커(Zeekr)·링크앤코(Lynk & Co)·지리 차량을 전시하고 시승 기회를 제공했다. 지커와 웨이모의 협력으로 만든 차량은 미국에서 웨이모 '오하이(Ojai)'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지리자동차는 캐나다 진출을 선언하고 2027 년 첫 차종을 내놓을 계획이다.



CES 2027 모빌리티 콘퍼런스 트랙별 세션 수. 자료=CTA

로보택시 승객의 시간… 차량 안이 콘텐츠 무대로

커넥트투카 트랙이 다루는 차량 내 인터페이스와 차량 내 거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직접 닿아 있다. 운전에서 손을 뗀 승객의 시간이 늘면 차량 화면은 영상·음악·게임과 광고를 소비하는 공간이 된다.

포드가 AI 비서를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넣기로 한 것과 웨이모 같은 로보택시 운영사가 기조연설 무대에 서는 일정도 같은 흐름에 있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6 에서 차량 앞유리 전체를 화면으로 쓰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로 혁신상을 받았다.

기아 자율주행 시험대, LG 이노텍 3 년 연속 혁신상

코리아타임스는 CES 2027 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기아가 좁히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했다. LG 이노텍은 차량용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Nexlide) C+'로 3 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고, 자율주행·휴머노이드용 물리적 AI 부품을 함께 선보인다.

현장 관람 포인트… LVCC 웨스트홀·센트럴 플라자

모빌리티는 LVCC 웨스트홀과 센트럴 플라자에 모인다. 스텔란티스는 6 일 오전 8 시 30 분 기조연설 내용을 웨스트홀 4518 번 부스로 이어 가고, 보쉬(Bosch)가 모빌리티 스테이지를 후원한다. 콘퍼런스는 6 일 커넥트투카(Connect2Car), 7 일 차량 기술, 8 일 회복력 있는 공동체 트랙 순이다.

전망… 차량 한 대보다 연결된 시스템

CTA 트렌드 발표와 콘퍼런스 세션 목록은 차량 자체보다 차량이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서비스·데이터를 앞세웠다.

오토퍼시픽은 CES 2026 에서 차량 중심 전시를 유지한 완성차가 소니혼다의 아필라와 중국의 지리·장성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CES 2027 에는 스텔란티스와 포드가 이름을 올리면서 완성차의 비중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차량 화면과 결제를 다루는 세션이 늘어난 만큼, 한국 콘텐츠·플랫폼 기업에는 차량 안 서비스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만날 기회도 된다.

35 만 제곱피트는 약 3 만 2500㎡로 환산. 큰따옴표는 보도·영상에서 나온 발언, 따옴표 없는 인용은 요약이다.

참고 자료

· CES, "CES Tech Trends: Mobility" (YouTube, Nov. 18, 2026)
· CTA, "Largest Mobility Footprint Ever at CES 2027" (Nov. 2, 2026)
· CTA, Stellantis to bring human-centered mobility vision to CES 2027 keynote (Sept. 8, 2026)
· Transport Topics, CES shows how AI, software are redefining truck technology
· The Shop, 4 auto market advancements at CES 2026
· 36Kr, CES 2027 preview: Geely and XPeng confirm attendance (Oct. 10, 2026)
· AutoPacific, What we saw and learned at CES 2026
· The Korea Times, Korean firms shift CES focus to industrial AI (Nov. 11, 2026)
· Herald Corp, LG Innotek Nexlide C+ wins CES 2027 Innovation Award
· Herald Corp, Hyundai Mobis at CES 2026 (Dec. 8, 2025)